

서울경제 100회

July 2013 vol.100

이달의 이슈

R&BD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김연배
기업의 R&D 아웃소싱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문수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서울경제분석센터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벤처기업 최근 5년간 1.7배로 증가
서울경제분석센터

경제동향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부록
통계표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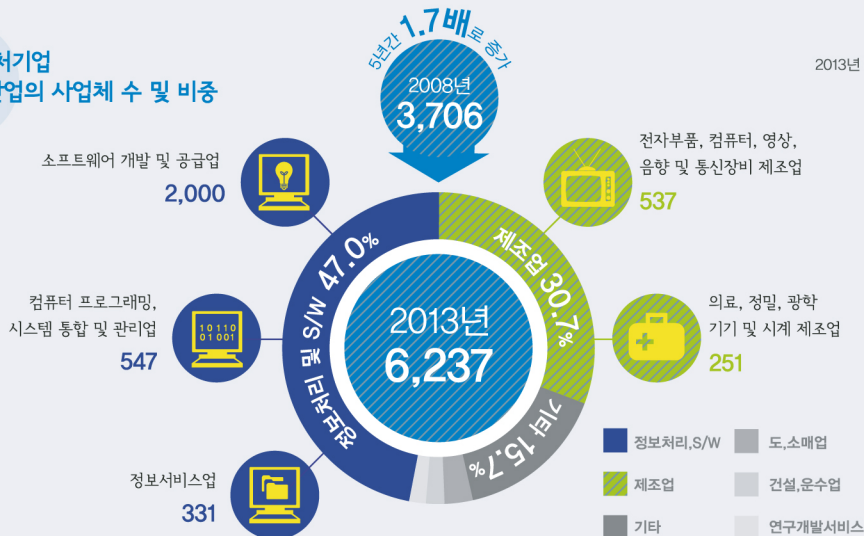
서울의 벤처기업 최근 5년간 1.7배로 증가!

2013년 산업 중 정보처리 및 S/W가 47.0%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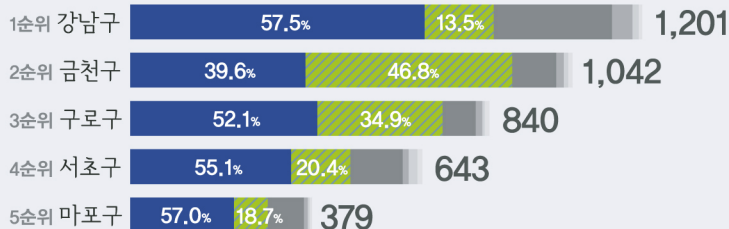
2013년 6월 자료 기준
단위: 개

서울 벤처기업

5순위 산업의 사업체 수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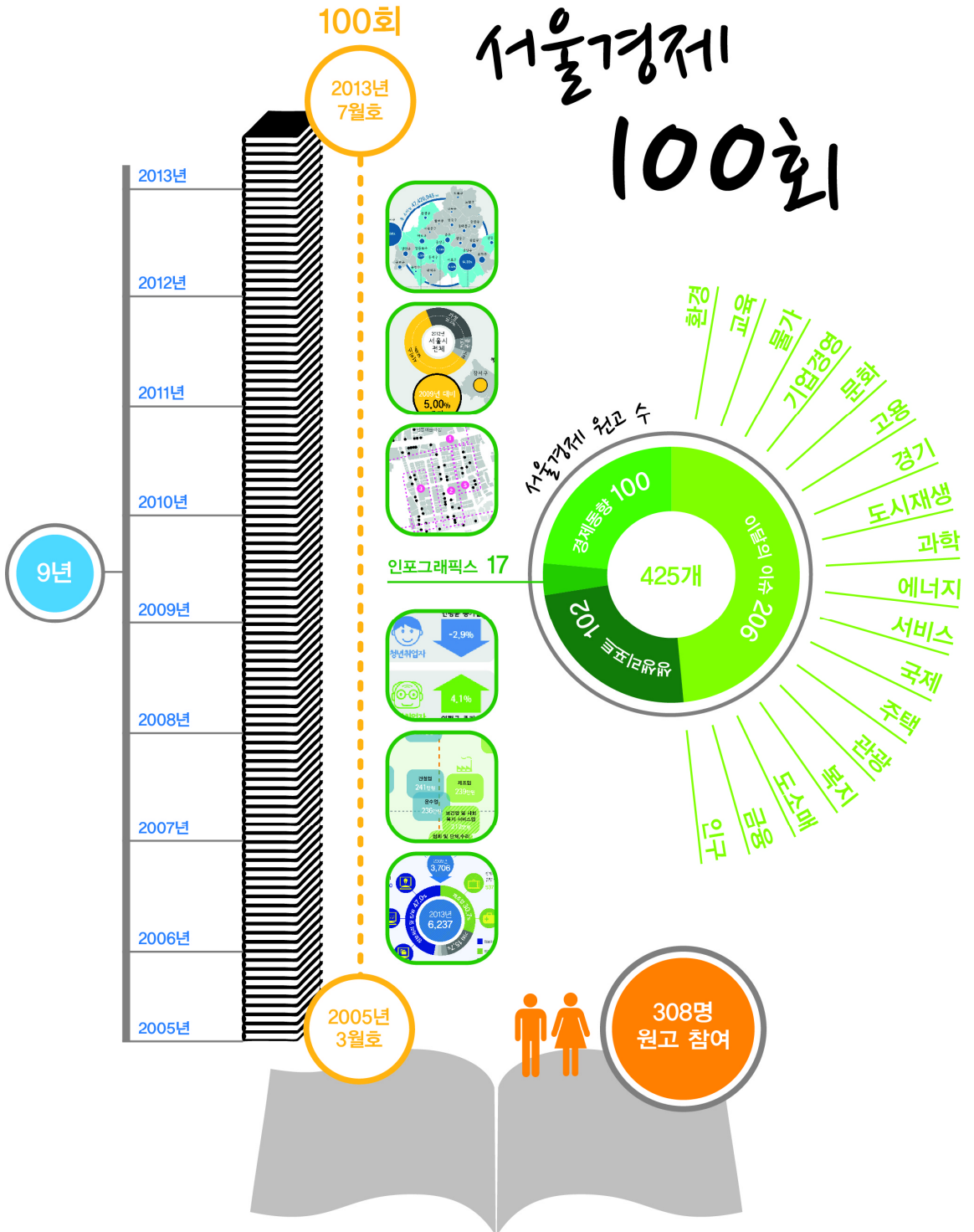


서울 벤처기업 5순위 자치구



자료: 2008년 6월, 2013년 6월 벤처인 (기술보증기금)

서울경제 100회



서울경제 100회

2013 7

- 이달의 이슈** 5 R&BD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김연배(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과 부교수)
- 14 기업의 R&D 아웃소싱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문수(산업연구원 연구원)

- 생생리포트** 23 서울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박병주(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실 조사연구팀)

- 인포그래픽스** 45 서울의 벤처기업 최근 5년간 1.7배로 증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경제동향** 51 요 약
- 53 생 산
- 55 소 비
- 56 고 용
- 59 물 가
- 60 부동산
- 62 금 융
- 70 수출입
-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 부록** 75 통계표

R&BD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김연배*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

기금 부교수

kimy1234@snu.ac.kr



1. 들어가며

최근들어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라는 표현이 유행이다. 이것은 R&D (Research & Development)를 통한 지식과 아이디어의 창출에만 그치지 않고 상업화 (Business Development)까지 밀고 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R&BD라는 표현이 학문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이 표현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¹⁾

이러한 표현이 유행하는 것은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구체적으로 활용되어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어야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정부가 해 주어야 할 일들의 리스트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 R&D 활동의 보완적 또는 부수적 역할에 그쳤던 기술의 사업화 (상업화) 활동이 이제는 독자적인 과정으로 부각되고 이것들을 제대로 하느냐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박사, 2001~2004년 ETRI 선임연구원 (기술경제연구팀)

기술사업화 정책변화방향예측에 관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pp.803-824, 2013년 4월(공동저자)

Licensing versus selling in transactions for exploiting patented technological knowledge assets in the markets for technology,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Volume 38, Issue 3, June 2013, pp. 251-272 (공동저자)

1)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보도자료, 2013년 6월 12일

못하느냐에 따라 기업 또는 산업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하는 상황이 되었다.

본 고는 'R&BD' 또는 '기술사업화' 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서울시에 주는 시사점으로 이루어 졌다. 기술사업화 활동은 어떠한 유형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유형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이 있는지를 중소기업의 상황을 가정하여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서울시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업 전략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방향성 또 정책 측면에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 제시 등은 저자의 현재 능력 이외의 것으로 본 고에서는 논의하지 않을 예정이다.

2. R&BD 왜 중요한가?

R&D와 이를 통한 지식 및 아이디어의 창출의 중요성은 라도삼 (2013)²⁾의 설명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왜 추가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활동이 중요한 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기업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식은 그냥 아이디어 그 자체 일 뿐 제품(Product)이나 사업(Business)이 아니다. 지식을 제품이나 공정에 체화시켜서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추가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지식이 제품이나 사업으로 구현(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의 변환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것을 변환시켜낼 수 있는 능력(보완자산; Complementary Assets)³⁾도 요구된다. 또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뒤에 서 자세히 설명하겠다)의 환경에서는 지식 소유자 및 관리자도 지속적으로 변동된다(소유권의 변동 및 이전). 이러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소유권 변동에 의한 이해관계의 변동을 잘 조정하면서 최종적인 성과(시장에서의 성과)가 발생하도록 잘 '관리'하는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식의 사회적(국가적) 확산은 장려되어야 한다. 특정부문(기업)의 지식은 양이 많아질수록 다른 부분에 파급되고 이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빠른 속도의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등 지식의 파급 확산은 사회적 혁신의 원천일 수 있다⁴⁾. 그러나 파급과정에서 지식의 창출자와 사용자(활용자) 사이의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창출자는 자신의 지식의 배타적(독점적) 소유권을 확실히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사용자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진다. 일단 창출된 지식이라면 무료로(매우 낮은 가격)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고 활용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

2) 라도삼 (2013), 창조경제론의 부상과 서울시 대응전략, 서울경제, 5월, pp10~19

3) Teece, D.J. (1986). Profiting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Implications for integration, collaboration, licensing and public policy, *Research Policy* 15

Teece, D.J. (2006). Reflections on Profiting from Innovation, *Research Policy* 35.

4) Encaoua D. Guellecb, D. Martínezc, C (2006), Patent systems for encouraging innovation: Lessons from economic analysis, *Research Policy* 35.

다. 하지만 이것은 창출자의 혁신유인 (incentive)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다. 지식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사적 소유권을 설정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이유로 어떻게든 소유권을 설정해야하는 재화이기도 하다⁵⁾.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의 사회적 활용과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에서의 한국경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과거 선진국들의 기술과 지식을 참조 (benchmarking) 하면서 기술 추격을 이루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 더 이상 따라할 모범이 없는 기술적 선도국 (frontier)이 되었으며 이제는 탈 추격을 위한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⁶⁾. 그러나 모든 분야의 모든 기술에서 한국이 첨단 (frontier)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꼭 그래야 될 필요도 없다. 즉 우리는 분야에 따라서는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외부의 지식을 탐색하고 활용하여 선도 국가 및 기업을 추격하는 것을 전략으로 할 수 도 있다. 오데드 센커 (2011)⁷⁾는 기술 선도자가 아닌 추격자 (모방자)가 시장에서 오히려 더 성공했던 무수한 사례를 들고 있다. 즉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지식을 선도적으로 창출하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외부의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고 및 적절히 활용하여 성공적인 기술 추격을 이루어내야 하는 상황 (단계)에 있다.

3. R&BD와 환경변화

R&BD 또는 기술사업화는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왜 중요하지 않았는지 (또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검토해 보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대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과거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전적으로 필자의 의견이지만 이것은 소위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즉 객관적인 환경이 변화 했다 기 보다는 (또는 그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의 틀이 변화 했다 기 보다는) 사람들의 '관점' 그자체가 어떠한 이유로 변화한 것이다.

R&BD와 더불어 함께 논의해야 것이 개방형 혁신 (Open innovation)⁸⁾이다. 최근 많은 사람이 언급⁹⁾하고 있으니 간단히만 이야기 하겠다. 과거에 기업들은 자신이 기술지식을 창출하고 제품을 개발 생산하며 그리고 그것을 본인 직접 사업화였다 (‘not-invented-here (NIH) syndrome’¹⁰⁾). 외부의 기술자원을 사용하기를 꺼리고 또한 자

5) Encaoua D. Guellech, D. Martinezc, C (2006), Patent systems for encouraging innovation: Lessons from economic analysis, *Research Policy*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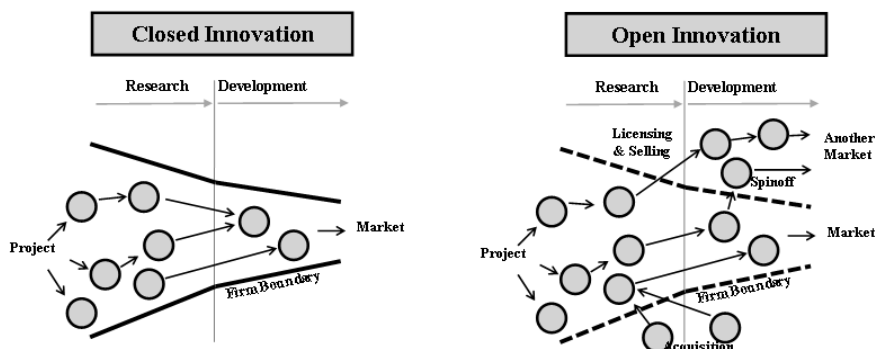
6) 송위진, 성지은, 김연철, 황혜란, 정재용 (2007). 탈추격형 기술혁신체제의 모색,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7) 오데드 센커. 2011. “카피캣: 오리진을 뛰어 넘는 창조적 모방의 기술,” 청림출판

8) Chesbrough, H.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9) 김석관, 장병열, 이윤준, 송종국, 안두현, 이광호, 최지선 (2008), 개방형 혁신의 산업별 특성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의 기술지식 (Corporate crown jewels)을 잃지 않기 위해 내부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었다¹¹⁾. 이것이 일종의 폐쇄형 혁신 시스템 (closed innovation system)이다.



(출처: Chesbrough (2003)¹²⁾)

[그림 1] 폐쇄형 혁신과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

개방형 혁신은 ‘기업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혁신 (지식)의 이동 확산을 의미한다. 이 환경에서 기업은 유용한 외부지식을 사업 확장에 활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본인의 내부 지식을 다른 기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즉 기업들에게 '외부'지식 (아이디어, external knowledge)의 활용 그리고 자신의 아이디어의 기업 외부적 활용 (external exploitation)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¹³⁾

위의 [그림 1]은 개방형 혁신을 표현하는 것인데, 동시에 R&D의 모습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지식 아이디어, Research)과 사업화 (활용, Development, 제품 개발 등)의 단계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사업화 단계의 독자적 위치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개방형 혁신 패러다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양상의 기술사업화 (R&D) 활동이 존재함 (Acquisition, licensing, selling, spin-off 등) 보여 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R&D와 개방형 혁신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서로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 Chesbrough, H.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1) Chesbrough, H.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2) Chesbrough, H.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3) Chesbrough, H.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4. 중소기업과 R&BD

이제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의 다양한 활동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자.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기업의 상황 (특성) 그리고 외부 환경 등에 따라 그 구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두 가지 대표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각 경우의 중요한 사업화 활동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혁신자로서의 중소기업¹⁴⁾

원인이 어찌되었건 아주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자. 또는 소위 이야기하는 기술을 보유한 벤처 창업기업 (예정 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 아이디어 (기술)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추가로 해야 하는가?

먼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 (Business)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비즈니스 모델¹⁵⁾의 적절한 수립과 집행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자신의 아이디어 (기술)을 일종의 투입요소로 하여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개발할 때 어떠한 시장을 공략 대상으로 할 것인가 (Target Market)? 이 사업이 (제품이) 고객에게 제안하는 가치(이득)는 무엇인가 (Value Proposition)? 사업의 가치 사슬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가치 사슬에서의 본 기업의 위치는 (Value Chain and Position in Value Network)? 이 사업을 통한 비용과 수익창출 방식은 (Cost and Margin)? 예상 경쟁자와의 경쟁전략은 (Competitive Strategy)? 이러한 것이 비즈니스모델의 구성 요소¹⁶⁾이다.

결만 번지르르한 기획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기술의 사업화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보완자산 (complementary Asset) 획득 또는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는 생산 설비 (manufacturing facility), 유통망 (distribution), 마케팅 채널 (marketing channel), 보완 기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한 자금력 등도 포함된다. 산업별로 그리고 기술별로 중요한 보완자산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보완자산이 중요한 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산

14) Teece, D.J. (1986). Profiting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Implications for integration, collaboration, licensing and public policy, *Research Policy* 15

Gans, J. S. and Stern, S. The product market and the market for "ideas": commercialization strategies for technology entrepreneurs, *Research Policy* 32
의 기본 연구틀 (framework)을 수정 보완하여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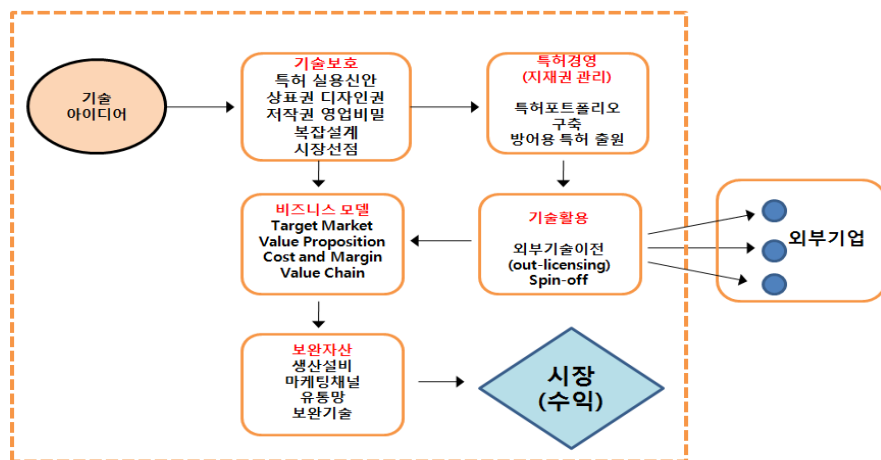
15) Chesbrough, H.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6) Chesbrough, H.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업이 있을 수 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이러한 보완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관련 산업에 이미 존재하는 '대기업'들이 풍부한 보완자산으로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벤처기업이 사업도 해 보기 전에 아이디어만 빼앗길 수도 있다¹⁷⁾. 보완자산이 부족하다면 대기업 등에 기술이전 (out-lincensing)을 통해 주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자신의 '아이디어' (기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자신의 보유 아이디어 (기술)의 재검토 (실사 등)을 통해 시장적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고 가치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또한 모방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기술을 지켜 낼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특허이외에도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법률적 (지식재산권)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 영업비밀, 복잡설계, 시장선점 등 비 법률적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¹⁸⁾. 침해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면 (특허) 소송도 걸 수 있어야 한다.

특허 등 지식재산 권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특허 경영)¹⁹⁾. 자기 특허 간의 네트워크 (포트폴리오) 구성하여 타사의 전략특허를 포위하는 (surrounding)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blocking) 특허를 출원할 수 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허를 취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림 2] R&D 활동: 혁신자로서의 중소기업

17) Gans, J. S. and Stern, S. The product market and the market for “ideas”: commercialization strategies for technology entrepreneurs, *Research Policy* 32

18) Gallie, E.P. and Legros, D. (2012). French firms’ strategies for protecting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Policy*,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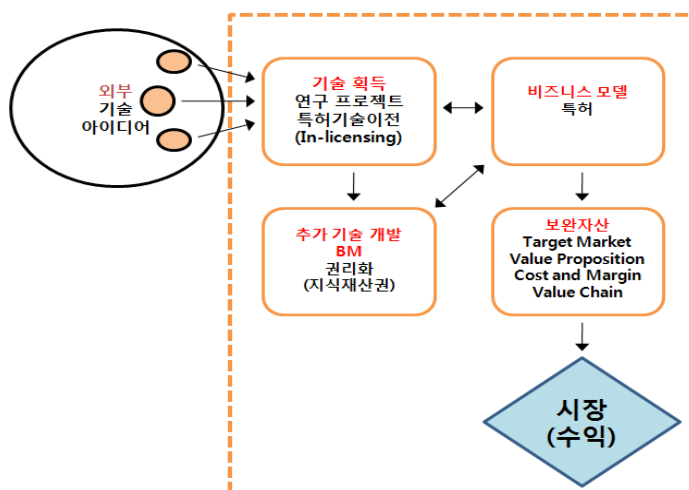
19) Granstrand, O. (1999) *Strategic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CIM Working Paper, Dept. of Industrial Management and Economics, Chalmers Univ. of Technology.

2) 아이디어 활용자로서의 중소기업²⁰⁾

중소기업이 참신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항상 가질 수 없다.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기술과 그 기업을 참조 (benchmarking)하여 틈새 기술을 개발하여 선도자를 추격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기술 선도자보다 이러한 추격자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성공한 경우가 많다²¹⁾. 기술 후발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선도자를 적절히 벤치마킹하고 학습하면서 추격 하는가 또는 어떠한 학습 전략이 성공적인 추격을 이끄는가? 하는 것이 아이디어 활용자의 중요한 고민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대기업, 공공 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를 위한 적정 기술과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 과정에서 내부적 역량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기술적 요구를 적절한 외부 기술 (아이디어) 획득을 통해 해결하여 마지막 퍼즐을 채울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외부 기술 및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과 확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외부 기술을 획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초기 단계의 연구 프로젝트를 외부기업에 의존할 수 도 있고, 이미 특허를 취득한 외부 기술을 이전 (Technology In-licensing) 받을 수도 있다.

획득된 아이디어를 적절히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설정과 집행 그리고 사업화를 위한 필수 보완자산의 획득, 개발 및 관리의 이슈는 1)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 획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추가 기술 개발'과 관련 지식재산권 획득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권리화) 관리도 중요한 추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 R&BD 활동: 아이디어 활용자로서의 중소기업

20) Chesbrough, H.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Cambridge,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에서의 연구틀 (framework)을 수정 보완하여 적용함

21) 오데드 센커. 2011. “카피캣: 오리진을 뛰어 넘는 창조적 모방의 기술,” 청림출판

5. R&DB의 정책적 지원은 필요한가?

지식(기술)은 공공재적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수준보다 적게 창출된다²²⁾. 지식 창출 부문의 시장실패는 지식 창출 및 확산 과정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함을 뜻한다.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제도나 공공R&D 등이 대표적인 개입(지원)의 예이다. 이제 R&DB (기술사업화)의 측면에서 보면, R&DB는 기술(아이디어)의 사회적 효과를 완성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R&D 정책적 지원(개입) 필요성의 논리는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R&D의 사회적 역할을 완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벤처 창업 기업에의 R&DB 지원은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광범위하게 촉진하는 것으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소기업 지원의 차원에서도 접근 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은 위에서 언급할 다양한 기술 사업화 활동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6. 서울시에 대한 시사점

서울시도 이러한 R&BD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서울통산산업 진흥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R&BD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업 보육사업, 창업사업, 지식사업 등이 그 예이며 그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²³⁾. 이러한 정책들은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책의 운용에 있어 서울시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첫째, 일반적인 기업 (산업) 지원 사업과 R&BD 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그 둘을 꼭 구분을 해야 하는가? 또한 그렇다면 일반적인 기업 지원은 필요 없는가? 등의 반대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으며 성격상 그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은 다르다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즉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R&BD 사업은 R&D 사업의 연장선에서 서로 연계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 내외부에서 이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²⁴⁾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을 중요한 “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기업에 국한하고 있다. 즉 진정한 의미의 R&BD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 분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22) Encaoua D. Guellecb, D. Martinezc, C (2006), Patent systems for encouraging innovation: Lessons from economic analysis, *Research Policy* 35.

23) 서울 통산산업 진흥원: <http://www.sba.seoul.kr/kr/index.do>

24)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보도자료, 2013년 6월 12일

기술사업화 정책은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에서만 시행해 오지 않았다. 중앙정부도 오랫동안 시행해 온 정책이다. 즉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이 정책을 집행해 왔고,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이 관리 역할을 해 왔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완전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완전히 차별적인 정책을 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공공 부문이라도 어느 정도의 (업무) 중복은 건전한 정책 경쟁을 유도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특성화 및 업무 분담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²⁵⁾은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전통분야 사업화 촉진형'이라는 지원 유형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는 지자체의 정책 특성화 시도로서 향후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보도자료, 2013년 6월 12일

기업의 R&D 아웃소싱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문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mspark@kiet.re.kr

1.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R&D 아웃소싱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최근 기업들에서는 기술혁신(technology innovation)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연구개발(R&D)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체적인 내부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외부로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비 절감과 함께 외부업체의 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R&D 아웃소싱은 기본적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¹⁾의 일부분으로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Texas A&M 경제학 박사,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실 연구위원
- 한국 기업의 R&D 아웃소싱과 성과(2011.12), 오프쇼어링이 생산성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과제(2010)

- 1)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요구되는 모든 과정을 내부 연구개발을 통해 수행했던 과거의 “폐쇄적 혁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내부의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의 기술 및 지식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개념임.

서 개별 기업들이 신제품 혹은 신서비스 개발에 따른 기업의 경쟁부담을 외부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줄여나가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기업들은 혁신활동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비용 상의 문제들을 외부 시장 혹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신상품 개발을 위한 R&D 활동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외부의 지식 네트워크를 이용한 아웃소싱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R&D 아웃소싱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최근 들어 기술의 융합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의 수명주기가 과거에 비해 매우 짧아지고 있어 기업의 내부개발을 통한 제품 생산이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생산에 비해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성격이 전혀 다른 R&D를 하나의 기업에서 모두 소화하는 것은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R&D 아웃소싱의 활용의 성과가 기업 전체의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R&D 아웃소싱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2. 우리나라 기업의 R&D 아웃소싱 현황

「연구개발활동조사」 내 2008년에서 2010년 기간의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적인 R&D 아웃소싱 지출 비용 및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와 비중 두 측면 모두에서 전체적인 기업의 R&D 아웃소싱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2010년 공공연구기관, 의료기관, 대학, 기업체 등이 외부기관에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총 5조 7,859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13.2%를 차지하였으며, 총 연구개발 외주금액 중 77%에 이르는 4조 4,734억 원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출로 나타났다.

<표 1> 우리나라 기업의 R&D 아웃소싱 지출 및 비중

(단위: 개, 백만 원, %)

	총 연구개발비(A)	연구개발비 지출			
		합계(B)	비중(B/A)	민간기업(C)	비중(C/B)
2008	34,498,054	3,990,507	11.6	3,055,658	76.6
2009	37,928,502	4,902,230	12.9	3,764,410	76.8
2010	43,854,834	5,785,925	13.2	4,473,483	77.3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각 년도.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통해 기업 수준에서의 R&D 아웃소싱 활용 현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업종별, 기업규모 및 연령별, 본사소재 지역별로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먼저 전 산업의 경우, 현황 측면에서는 전체 기업 중 약 9%의 기업들이 R&D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투자규모 측면에서는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 투자의 15% 내외가 R&D 아웃소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R&D 아웃소싱 활용 비중은 서비스업종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으며, 총 연구개발비 대비 외부위탁 연구개발 비중도 제조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서비스업종의 기업들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용근로자 수에 의한 기업규모와 R&D 아웃소싱을 활용한 기업의 비중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100인 미만 기업에 비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R&D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비중이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모와 R&D 아웃소싱 비용 비중 간에는 U자형 관계를 보이며, 100인 미만 기업의 R&D 아웃소싱 비용 비중은 300인 이상 기업의 R&D 아웃소싱 비용 비중의 5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 연령별로 보면, 기업 연령과 R&D 아웃소싱 기업 비중 간에도 정(+)적인 상관관계 보이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설립 후 1년 이하인 기업들 중에서 R&D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은 전체의 7% 수준이나, 설립 후 11년 이상 된 기업들의 경우는 R&D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이 전체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본사소재 지역별로 살펴보면, 본사가 서울 이외 지역에 위치한 경우보다 서울 내에 위치한 경우에 R&D 아웃소싱 기업 및 비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R&D 아웃소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지역 기업이 2~3배 높게 나타났다.

<표 2>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별 R&D 아웃소싱 현황

	R&D 아웃소싱 활용 기업 비중			R&D 아웃소싱 비용 비중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전 산업	8.92	8.59	8.80	12.82	14.36	16.27
산업별						
제조업	11.23	10.49	10.80	11.2	12.15	14.16
건설업	11.64	12.8	13.32	29.51	38.90	43.36
서비스업	4.83	5.14	5.50	9.10	11.80	12.45
기업 규모별						
100인 미만	6.44	5.64	5.51	7.32	5.97	9.29
100~199인	8.37	8.01	7.63	5.86	5.74	5.70
200~299인	10.33	8.89	11.65	7.29	11.12	18.25
300인 이상	17.47	18.41	18.98	13.88	15.56	17.22
기업 연령별						
1년 이하	5.15	9.89	6.94	1.77	25.57	23.68
2~5년	7.83	5.93	4.85	16.85	11.92	3.01
6~10년	7.95	8.20	8.18	6.77	15.94	15.29
11년 이상	9.59	9.08	9.58	13.29	14.35	16.99
지역별						
서울	9.35	10.04	10.53	15.74	18.01	19.02
서울 외	8.66	7.69	7.70	6.65	6.15	8.90

주: 1) R&D 아웃소싱 기업 비중(%) = (R&D 아웃소싱 기업 수/총 기업 수)×100

2) R&D 아웃소싱 비용 비중(%) = (총 외부위탁 연구개발비/총 연구개발비)×100

R&D 아웃소싱과 기업의 성과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²⁾ R&D 아웃소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이나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작은 기업의 경우 R&D 아웃소싱에 참여하는 경향이 낮을 뿐만 아니라 R&D 아웃소싱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기업성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 아웃소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기업성과의 제고는 물론 연구개발서비스업과 같은 R&D 아웃소싱 시장의 확대 및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R&D 아웃소싱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한국 기업의 R&D 아웃소싱과 성과」,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2011)

3. R&D 아웃소싱 활용상 문제점

R&D 아웃소싱 활용상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부족 관련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0)³⁾에 따르면, 대부분의 R&D 아웃소싱 계약은 업체 대표나 직원들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R&D 아웃소싱이 주로 개인 인맥 위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R&D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기업의 기밀 등을 이유로 R&D 아웃소싱 계약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이 R&D 아웃소싱을 활용하기 위해 적합한 공급업체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또한, R&D 아웃소싱 공급업체의 입장에서 R&D 아웃소싱을 원하는 수요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수요업체를 찾아 R&D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수요업체와 거래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정보 혹은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이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죄수의 딜레마’와 유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계약기준 관련 문제점을 들 수 있다. R&D 아웃소싱은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진다기 보다는 개별기업 간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세한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두 기업 간의 특수 관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명기하지 않은 채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즉, R&D 아웃소싱 대한 구체적인 계약조건이 부당하거나 모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R&D 아웃소싱 비용 등과 같은 계약 조건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는 R&D 아웃소싱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거래비용 상승으로 연결된다. 더욱이 “불확실성”이 거의 모든 종류의 서비스 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거래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R&D 아웃소싱에서는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범용 상품이 아니라 특정 수요업체에게만 유용한 배타적 서비스일 뿐 만 아니라 아웃소싱의 거래가 되는 기술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명확한 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업규모에 따른 애로요인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핵심적인 역량에 해당하는 R&D는 해당 업체에서 수행하더라도 비핵심 기술에 대한 R&D는 외부의 전문 업체에 맡겨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

3)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0), 『아웃소싱 우수 사례집』.

나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재원 및 신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자체 R&D 수행과 R&D 아웃소싱 모두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생산기술이나 공정의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업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중소기업의 R&D 아웃소싱이 부진한 이유는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재원 및 인적 네트워크 부족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R&D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투자여력 부족과 인적 네트워크 부족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셈이다.

4. R&D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이와 같은 R&D 아웃소싱 과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R&D 아웃소싱 관련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R&D 아웃소싱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사이의 정보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유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R&D 아웃소싱 성공사례 및 성과 분석이나 포괄적인 공급 및 수요기업 리스트를 정책 당국의 주도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정보 정도가 제공된다면 R&D 아웃소싱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정보공유는 우리나라 R&D 아웃소싱 공급기업의 해외수주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글로벌 R&D 아웃소싱이 활성화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기업의 원활한 R&D 아웃소싱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활동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으로, 대부분의 R&D 아웃소싱 전문 공급기업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포함된다. 특히 서울과 같이 연구개발비 및 연구인력의 비중⁴⁾이 높은 지역에서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더욱이 타 지역 R&D 기업들에 비해 서울에 입지한 R&D 기업들의 아웃소싱 형태는 연구개발 자체의 위탁보다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서비스업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 따라서 서울시의 연구개발서비

4) 2011년 서울의 연구개발비는 9조 2,313억원, 연구개발인력은 96,372명으로 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구비의 18.5%, 연구인력의 25.7%를 차지하고 있음(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활동조사」, 2011).

5) 서울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현황과 산학연 협력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2009)

스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서울 지역의 연구개발투자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이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의 실효적 성과를 얻기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R&D 아웃소싱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이 활성화될 경우 서울지역의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미국이나 EU에서는 이미 대형화, 전문화된 글로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들이 출현해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구개발 서비스기업의 영세성, 정보네트워크 부족, 실효성 있는 조세 및 금융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물론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앙 및 지방정부가 실현가능한 플랜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장기적 발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주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아웃소싱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적권 보호를 통한 기술유출의 위험을 낮춘다면, 기업들의 정보네트워크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기술력 혹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민간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을 통한 제도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다면 기업의 R&D 아웃소싱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기업의 R&D 아웃소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참고문헌

-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2011), 「한국 기업의 R&D 아웃소싱과 성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 2009, 2010, 2011), 「연구개발활동조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0), 「아웃소싱 우수 사례집」
- 통계청(2006, 2007, 2008), 「기업활동조사」
- Seoul R&BD Report(2009). 「서울의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현황과 산학연 협력사업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

SEOUL ECONOMIC BULLETIN

생생리포트

■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박병주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실 조사연구팀)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박병주

서울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실 조사연구팀

bjpark@seoulshinbo.co.kr

I. 조사의 개요

II.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장의견

III.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자구노력

IV. 서울지역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평가 : 신용보증을 중심으로

V. 요약 및 정책제언

I. 조사의 개요

“서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의견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말 그대로 절대적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9%(약 312만개), 총고용의 86.8%(1,226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자체 및 각종 정책기관이 앞 다투어 내어놓는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상황은 좀처럼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혹시, 그 이유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말하는 현장의견과 정책요구를 좀 더 세심히 파악하지 못하여서는 아닐까?

매년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BSI) 등이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의 현황과 경영상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영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인식과 이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정성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일에 활용하기에는 분명 그 한계가 있다.

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정부의 바람직한 국정운영, 서울시의 현장중심 시책수립, 재단 업무의 효율적 운영방향 모색 등을 위한 기초자료에 활용하고자, 지난 4월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25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¹⁾

<표 1>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방법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한 우편조사(FAX, E-Mail 등을 보완 활용)
분석단위	3개 기업규모, 7개 업종, 4개 권역으로 구분
조사항목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장의견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자구노력
	서울지역 정책금융 운용에 대한 평가 : 신용보증을 중심으로

1) 2013년 상반기 현재, 약 19.1만개의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신용보증,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각종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그 중 약 1,200여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모여 '서울기업교류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본 조사에 이들 회원사 251개 업체가 참여 하였다.

II.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장의견

1. 정부의 정책방향 및 창조경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올해 2월,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내어놓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방향과 전반적 기조(基調)에 대한 설문 응답 기업의 89.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기업 및 소기업 규모와 건설 및 제조업 영위 업체, 서부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의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반면, 소상공인, 서비스 또는 도소매업 영위, 중부 및 남부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2> 정부의 정책방향 및 창조경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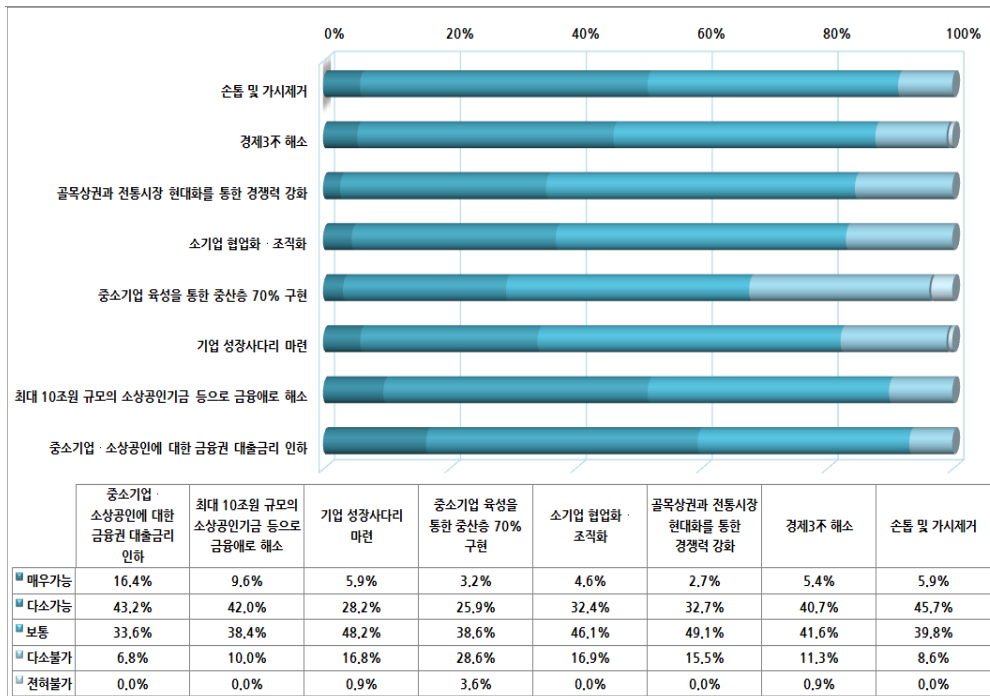
구 분		정책방향과 기조(基調)		창조경제 실현 가능성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전 체		89.1	10.9	84.3	15.7
기업 규모	중기업	89.7	10.3	89.7	10.3
	소기업	93.2	6.8	85.1	14.9
	소상공인	85.4	14.6	81.7	18.3
업 종	도소매	87.7	12.3	83.2	16.8
	서비스	84.2	15.8	86.8	13.2
	제조	92.2	7.8	82.0	18.0
	건설	90.9	9.1	81.8	18.2
	운수	100.0	0.0	100.0	0.0
	음식숙박	100.0	0.0	100.0	0.0
	기타	100.0	0.0	100.0	0.0
권역	중부	85.5	14.5	78.7	21.3
	동부	89.9	10.1	83.5	16.5
	서부	95.7	4.3	87.2	12.8
	남부	85.7	14.3	90.7	9.3

2) 지면 관계상 3개 기업규모별(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7개 업종별(도소매, 서비스, 제조, 건설, 운수, 음식숙박, 기타), 4개 권역별(중부, 동부, 서부, 남부)로 조사된 모든 통계치를 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는 언제든지 제시가 가능하며, 이어지는 조사결과에 대한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하 동일하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창조경제 정책마련’ 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4.3%가 ‘그렇다’ 라고 답하여 새로운 경제 활성화 정책과 전략에 대한 큰 기대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기업규모가 커질수록(중기업 89.7% > 소기업 85.1% > 소상공인 81.7%)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영세 소상공인 보다는 어느 정도 기업운영의 체계를 갖춘 수준에서 ‘창조경제’ 와 관련한 정책혜택을 실제로 더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2. 5년 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실행 성과에 대한 예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정책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은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 관련 정책이 꼽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비해, 각 항목별 성과 실현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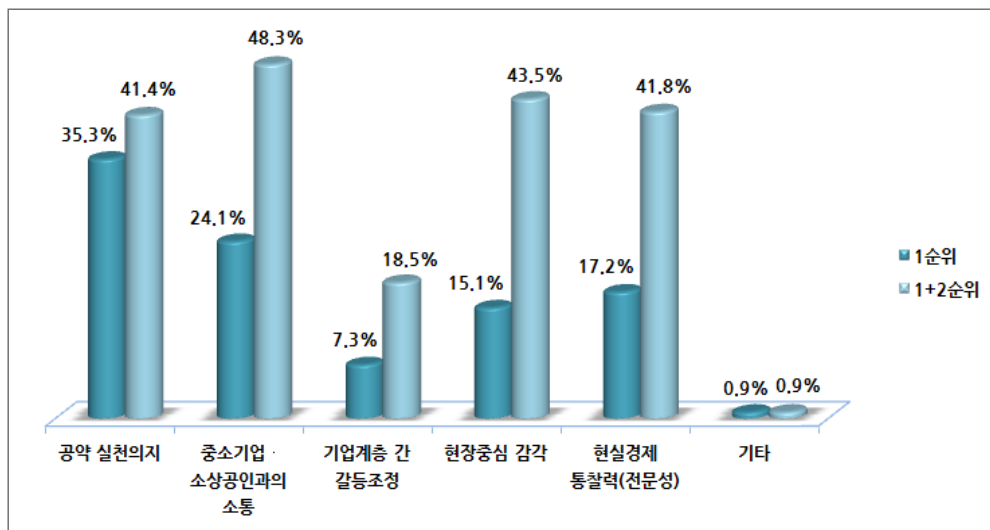
[그림 1] 5년 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실행 성과에 대한 예상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70% 구현’ 이 향후 5년 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은 10개 중 3개 기업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융부문과 관련된 정책(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자금 등을 통한 금융애로 해소 등),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과제들(손톱 밀 가시제거, 경제 3不 해소 등)은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3.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은 ‘공약실천 의지(35.3%, 이하 1순위 기준)’ 이 꼽혔다. 그 다음으로 ‘소통(24.1%)’, ‘현실경제에 대한 통찰력·전문성(17.2%)’, ‘현장중심 감각(15.1%)’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소기업 규모(33.3%), 남부지역 사업체(32.6%)는 공약실천 의지 보다 ‘소통’ 이 현재시점에 더욱 필요한 리더십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기타업종의 경우 ‘기업 계층(대·중·소·소상공인) 간 갈등조정 능력(40.0%)’ 을 가장 중요한 리더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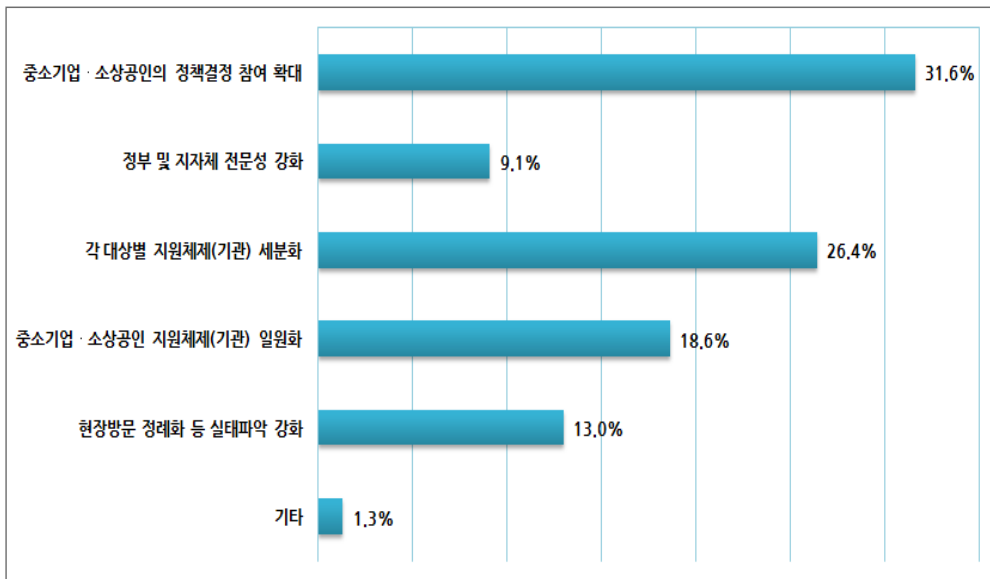


[그림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부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

4.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방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중심 정책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6.1%가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확대’를 꼽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반적으로 일원화 체제의 통합지원 방식 보다는 각 대상별(중·소·소상공인) ‘지원체제(기관) 세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도소매업(29.2%), 건설업(34.8%) 영위 업종과 중부지역(27.4%)에 위치한 사업체 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제조업(23.5%) 및 음식숙박업(28.6%)과 남부지역(23.8%) 사업체의 경우 지원체제 세분화 보다는 ‘일원화 된 통합지원 체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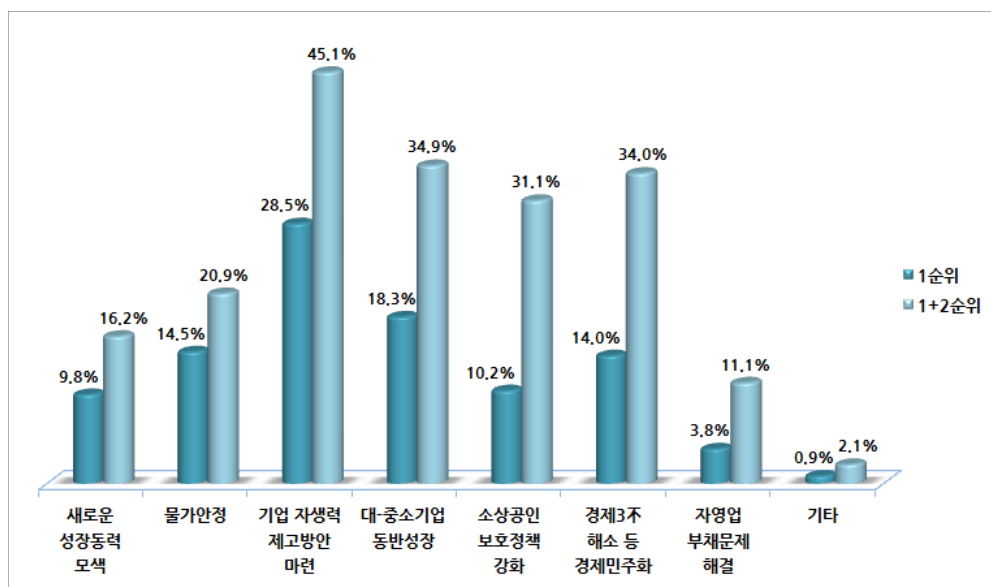


[그림 3]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방법

5.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25.8%(이하, 1순위 기준)가 ‘자생력 제고방안 마련’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18.3%)’, ‘물가안정(14.5%)’, ‘경제3不 해소 등 경제민주화 추진(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기업 자생력 제고방안 마련’이 최우선 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는데, 특히 음식숙박업(42.9%)의 해당항목 선택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자생력 제고방안 마련(중기업 45.0% > 소기업 30.0% > 소상공인 21.0%)’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보호정책 강화(소상공인 16.2% > 소기업 6.7% > 중기업 2.5%)’는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그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사업체들은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시장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先 보호책 마련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4]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

Ⅲ.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및 자구노력

1. 경영상황 : 매출 및 채산성

조사시점에 즈음한 응답기업의 월평균 매출액, 월평균 순이익 및 이에 대한 최근 6개월간의 변화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들의 영업실적이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매출액의 경우, 조사기업의 41.9%가 최근 6개월 前과 비교하여 ‘감소했다’ 라고 답하였다. 특히 음식숙박업(71.4%)과 도소매업(46.4%)의 매출액 감소 응답비율이 높아, 생활형·자영업 부문이 경기불황으로 겪는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부지역(54.8%) 및 남부지역(44.2%) 사업체의 매출액 감소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음식점 및 각종 도소매업 사업체가 밀집한 지역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표 3> 최근의 매출액 증감 여부

(단위 : %)

구 분		증 가	비 슷	감 소
전 체		16.9	41.2	41.9
기업 규모	중기업	25.0	32.5	42.5
	소기업	20.0	42.2	37.8
	소상공인	11.3	43.4	45.3
업 종	도소매	20.0	33.6	46.4
	서비스	9.8	46.3	43.9
	제조	22.4	42.9	34.7
	건설	8.7	56.5	34.8
	운수	0.0	100.0	0.0
	음식숙박	0.0	28.6	71.4
	기타	20.0	80.0	0.0
권역	중부	11.3	33.9	54.8
	동부	16.3	42.5	41.3
	서부	23.5	51.0	25.5
	남부	18.6	37.2	44.2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순이익 변화로 파악한 채산성 역시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7.3%가 감소한 것으로 답하였다. 이는 매출액 감소를 경험한 비율(41.9%) 보다 더 높은 수치로 순이익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최근의 순이익 증감 여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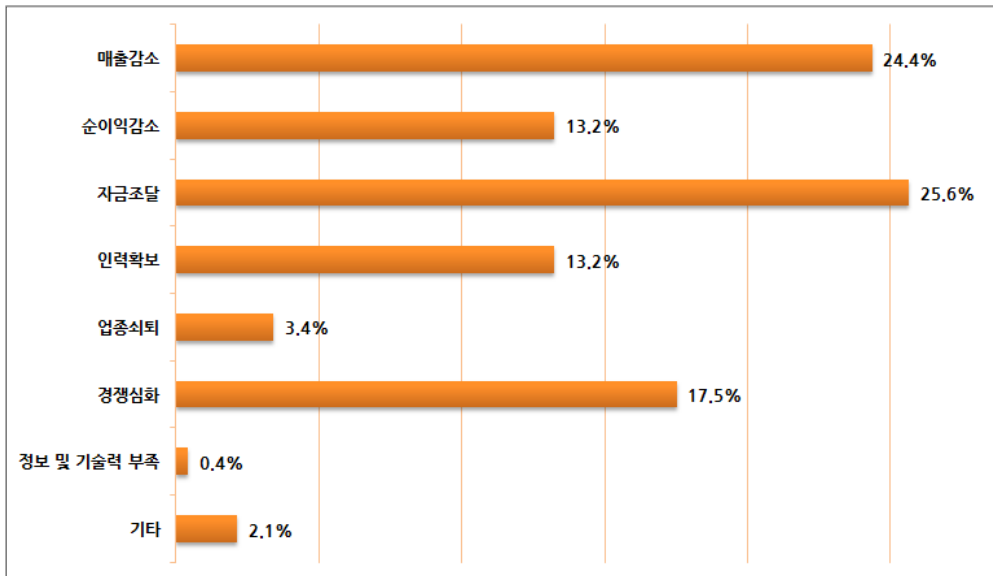
구 분		증 가	비 슷	감 소
전 체		14.2	28.4	57.3
기업 규모	중기업	20.0	25.0	55.0
	소기업	15.5	26.2	58.3
	소상공인	10.9	31.7	57.4
업종	도소매	18.3	22.1	59.6
	서비스	7.7	35.9	56.4
	제조	19.1	29.8	51.1
	건설	0.0	31.8	68.2
	운수	0.0	100.0	0.0
	음식숙박	0.0	28.6	71.4
	기타	20.0	60.0	20.0
권역	중부	12.1	22.4	65.5
	동부	14.1	29.5	56.4
	서부	17.4	37.0	45.7
	남부	14.0	25.6	60.5

업종별로는 생활형·자영업 부문의 대표적 업종인 음식숙박업(71.4%) 및 도소매업(59.6%)의 순이익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영향을 받은 건설업(68.2%)의 채산성 악화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액 및 순이익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부진’,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비용 증가’, ‘출혈경쟁 심화’ 및 ‘대기업의 동종업계 진출’ 등이 꼽혔다. 이를 통해,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문제의 원인을 기업 내부적 요인 보다는 거시경제 또는 경영환경과 관련된 시장 자체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최근의 가장 큰 경영애로 사항

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 (25.6%)’로 조사되었다. 자금조달의 경우, 중기업(32.5%) > 소기업(29.2%) > 소상공인(20.0%)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필요자금 조달에 애로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수반되는 각종 운영자금의 규모도 동시에 커지나, 그 수준에 맞는 내부 또는 외부 자금조달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5] 최근의 가장 큰 경영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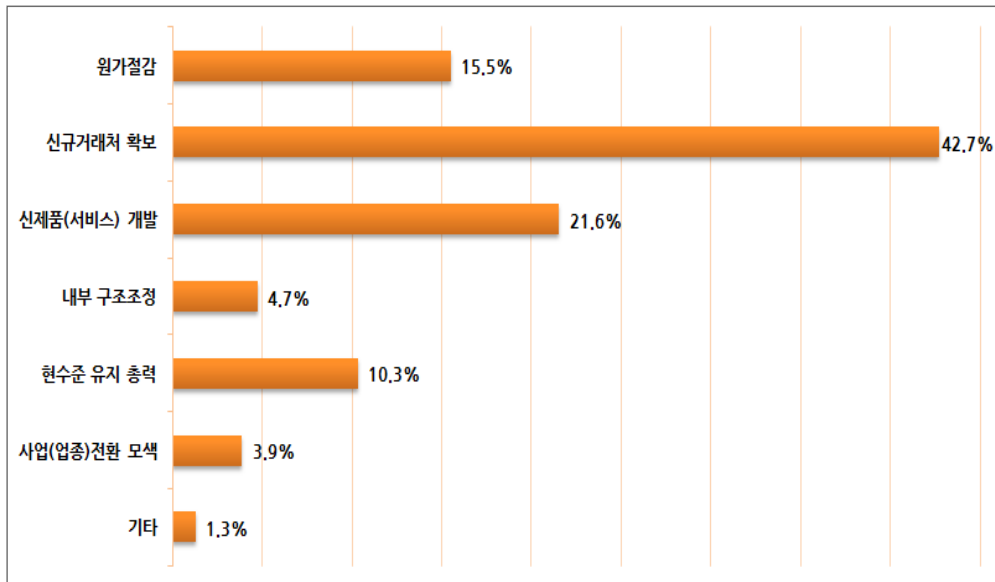
한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는 소상공인(26.7%) > 소기업(24.7%) > 중기업(17.5%) 순으로 나타나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에 따른 경영애로는 소규모·영세 사업체가 더욱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각 사항별 비율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조사대상 기업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보다는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영애로 사항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3.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조사대상 기업의 96.2%는 최근의 대내외적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폐업 또는 (재)취업 후 근로소득자 등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비율은 3.8%에 그쳤다. 또한, ‘사업(업종)전환’을 경영자 구책으로 선택한 비율도 전체의 3.9% 수준에 불과해, 어떻게 해서든 현 사업체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전(全) 업종이 ‘신규거래처 확보(42.7%)’를 통한 경영애로 극복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23.1%)과 음식숙박업(42.9%)은 ‘현 수준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음식숙박업(14.3%)의 경우 ‘사업(업종)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비율이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이들 업종의 자구책 마련이 가장 쉽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기업(28.2%)이 ‘신제품(또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한 자구책 마련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소기업(47.2%)·소상공인(45.2%)은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해 가장 애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 경영애로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Ⅳ. 서울지역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평가 : 신용보증을 중심으로

1. 신용보증 지원 후 변화 : 매출액 및 고용수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을 받은 후 매출액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1.1%가 ‘증가’ 하였다고 답하였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중기업 76.9% > 소기업 70.1% > 소상공인 69.7%) 매출증가에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소상공인 12.8% > 소기업 8.0% > 중기업 5.1%) 매출액 감소로 응답한 비율이 더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82.6%) > 도소매업(74.5%) > 제조업(67.3%) > 음식숙박업(66.7%) 순으로 매출액 증가를 더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의 39.0%는 신용보증 이용 전후의 매출액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5> 신용보증 지원 후 매출액 변화

(단위 : %)

구 분		대폭증가	소폭증가	증가	변동 없음	소폭감소	대폭감소	감소
전 체		8.9	62.1	71.1	19.1	8.5	1.3	9.8
기업 규모	중기업	23.1	53.8	76.9	17.9	2.6	2.6	5.1
	소기업	8.0	62.1	70.1	21.8	6.9	1.1	8.0
	소상공인	4.6	65.1	69.7	17.4	11.9	0.9	12.8
업종	도소매	11.8	62.7	74.5	13.6	10.9	0.9	11.8
	서비스	2.4	58.5	61.0	26.8	9.8	2.4	12.2
	제조	10.2	57.1	67.3	24.5	6.1	2.0	8.2
	건설	4.3	78.3	82.6	13.0	4.3	0.0	4.3
	운수	0.0	100.0	0.0	0.0	0.0	0.0	0.0
	음식숙박	0.0	66.7	66.7	33.3	0.0	0.0	0.0
	기타	20.0	40.0	60.0	40.0	0.0	0.0	0.0
권역	중부	6.8	59.3	66.1	25.4	8.5	0.0	8.5
	동부	11.3	56.3	67.5	17.5	13.8	1.3	15.0
	서부	9.4	75.5	84.9	11.3	3.8	0.0	3.8
	남부	7.0	60.5	67.4	23.3	4.7	4.7	9.3

신용보증 이용 후 고용변화를 묻는 질문에 조사대상 기업의 47.5%가 상시종업원 증가에 답하였고, 47.9%는 변동 없음, 4.7%는 감소로 응답하였다. 상시종업원 수가 증가하였다고 답한 업체를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기업 71.8% > 소기업 56.8% > 소상공인 31.2%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더 큰 고용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중기업(38.5%)에서 3명 이상의 고용증대가 이루어진 것이 주목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이 신규 인력확보를 위한 인건비 등에 사용되기 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부족한 운영자금에 주로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업(100%), 음식숙박업(57.1%) 및 건설업(52.2%)의 상시종업원 수 증가 비중이 높았는데, 위 업종이 전반적으로 노동집약적 특성을 띄고 있음을 생각할 때 신용보증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신규 인력채용 등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에 상당부분 충당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항목이 거의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지고 있는 요즘의 상황을 생각할 때, 신용보증을 통한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 보인다.

<표 6> 신용보증 지원 후 고용 변화

(단위 : %)

구 분		3명 이상	2명	1명	증가	변동없음	감소
전 체		12.3	14.4	20.8	47.5	47.9	4.7
기업 규모	중기업	38.5	15.4	17.9	71.8	25.6	2.6
	소기업	13.6	21.6	21.6	56.8	37.5	5.7
	소상공인	1.8	8.3	21.1	31.2	64.2	4.6
업종	도소매	10.9	14.5	21.8	47.3	48.2	4.5
	서비스	9.8	7.3	24.4	41.5	53.7	4.9
	제조	14.3	26.5	8.2	49.0	46.9	4.1
	건설	17.4	0.0	34.8	52.2	43.5	4.3
	운수	0.0	100.0	0.0	100.0	0.0	0.0
	음식숙박	14.3	14.3	28.6	57.1	42.9	0.0
	기타	20.0	0.0	20.0	40.0	40.0	20.0
권역	중부	15.0	8.3	20.0	43.3	48.3	8.3
	동부	10.0	15.0	20.0	45.0	50.0	5.0
	서부	18.9	17.0	24.5	60.4	39.6	0.0
	남부	4.7	18.6	18.6	41.9	53.5	4.7

2. 신용보증의 부도예방 효과

신용보증 이용이 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의 부도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조사기업의 86.2%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기업규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중기업 90.0% > 소기업 88.9% > 소상공인 82.6% 순으로 신용보증의 부도예방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 업종에 걸쳐 신용보증의 부도예방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특히 운수업 및 음식숙박업과 서부지역에 위치한 사업체가 ‘매우 도움된다’ 라고 생각한 비율이 높았다. 다만, 제조업 및 기타업종이 ‘보통’ 또는 ‘도움 안됨’ 으로 느끼는 비중은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 신용보증의 부도예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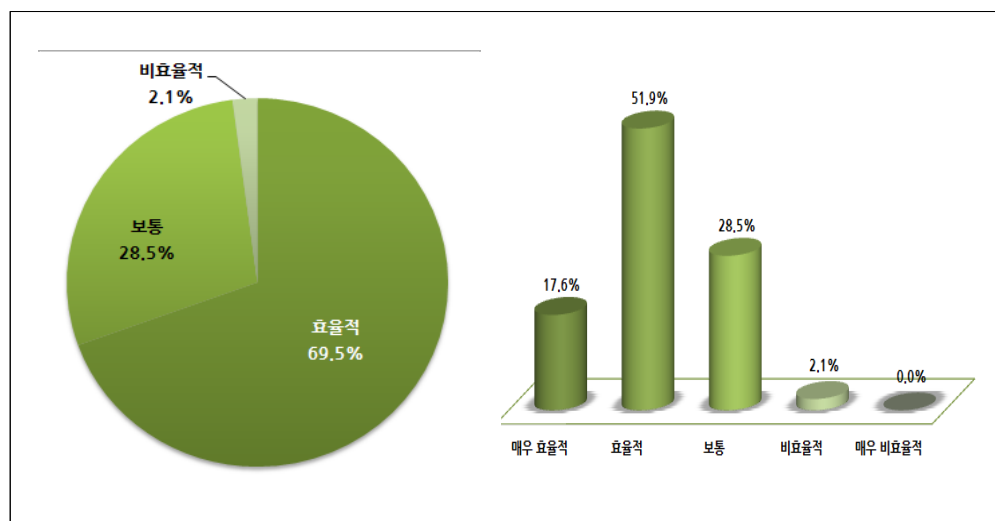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매우 도움됨	다소 도움됨	도움됨	보통	별로 도움안됨	전혀 도움안됨	도움 안됨
전 체		46.9	39.3	86.2	10.9	2.5	0.4	2.9
기업 규모	중기업	57.5	32.5	90.0	5.0	2.5	2.5	5.0
	소기업	50.0	38.9	88.9	7.8	3.3	0.0	3.3
	소상공인	40.4	42.2	82.6	15.6	1.8	0.0	1.8
업종	도소매	47.3	39.1	86.4	10.9	2.7	0.0	2.7
	서비스	54.8	35.7	90.5	7.1	0.0	2.4	2.4
	제조	41.2	39.2	80.4	15.7	3.9	0.0	3.9
	건설	43.5	52.2	95.7	4.3	0.0	0.0	0.0
	운수	100.0	0.0	100.0	0.0	0.0	0.0	0.0
	음식숙박	71.4	14.3	85.7	14.3	0.0	0.0	0.0
	기타	0.0	60.0	60.0	20.0	20.0	0.0	20.0
권역	중부	47.5	39.3	86.9	13.1	0.0	0.0	0.0
	동부	43.9	43.9	87.8	8.5	3.7	0.0	3.7
	서부	52.8	32.1	84.9	9.4	5.7	0.0	5.7
	남부	44.2	39.5	83.7	14.0	0.0	2.3	2.3

3. 서울지역 신용보증 제도의 운용 효율성

다른 종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비교할 때 신용보증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기업의 69.5%가 ‘효율적’ 이라 답하였다. 기업 규모별 응답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업종별로는 운수업(100%)과 기타업종(80.0%)이 느끼는 제도 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29.1%) 및 음식숙박업(28.6%)의 경우, 10개 업체 중 약 3곳 가량이 ‘보통’ 또는 ‘비효율적’ 이라 생각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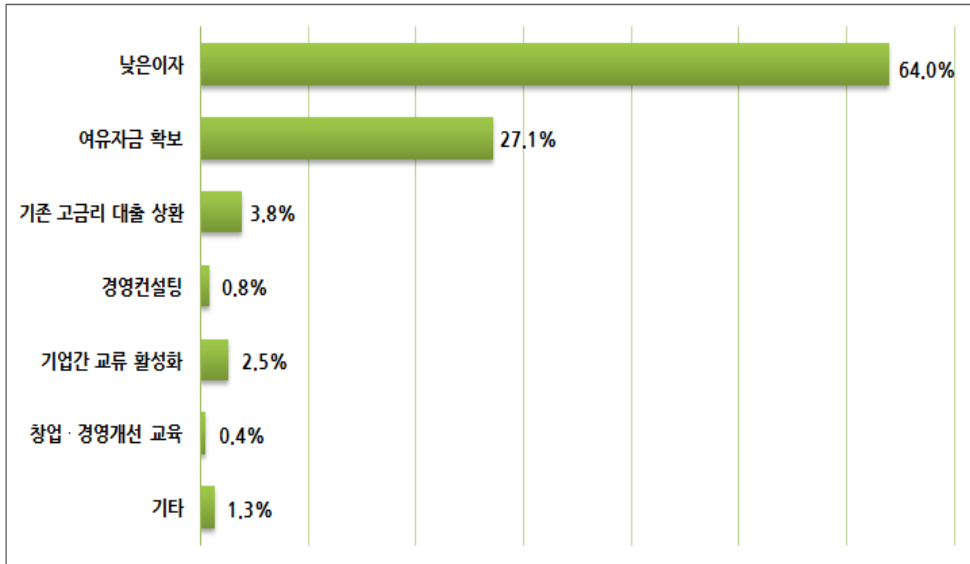
권역별로는 동부지역(74.1%)에 위치한 사업체의 긍정적 평가 정도가 높았던 반면, 중부지역(62.9%)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신용보증 운용의 효율성은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동, 종로 일대의 도소매 및 음식숙박 업종이 운집한 중부지역 특성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여 진다.



[그림 7] 신용보증 제도의 운용 효율성

4.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의 편익

공적보증기관 본연의 역할인 자금차입 시 담보문제 해결을 제외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을 통해 얻은 가장 큰 편익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4.0%가 ‘낮은 이자로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해 짐’을 꼽았다.



[그림 8]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의 편익

이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을 통한 장가·저리의 정책자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십분 발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여유자금 확보 가능(27.1%)’,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이 가능해 짐(3.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을 통해 주로 금융부문의 애로 해결에 절대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특히, 소상공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이 가능해 짐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체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경영컨설팅을 통해 얻은 편익 역시 소상공인 규모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금년 2월에 새롭게 출범한 새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정책에 대해 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다수의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실제 영위중인 업종이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분야이기 보다는 ‘생활형 자영업’ 관련 업종이 대부분임을 생각할 때, 창조경제 정책 비전이 이들의 사업영역에는 직접적인 혜택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풀뿌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상황을 고려한 ‘기업규모별 창조경제 실행방안’이 세분화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5년 뒤, 주요정책별 성과실현 가능 정도에 대한 예상을 묻는 질문에는 주로 ‘금융부문의 애로해소’와 관련된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증산증 70% 구현’ 같이 정책의 성공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될 ‘장밋빛 구호’에 가까운 목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경제부흥에 대한 막연한 기대형성 노력보다는 ‘현장 중심적이고 실제 운용 가능한 영역의 정책’을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밖에 ‘공약실천 의지’ 및 ‘소통 강화’ 등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로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 우선순위로 꼽혔다.

서울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확대’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위의 조사항목에서 현장과의 ‘소통 강화’가 가장 중요한 리더십 중의 하나로 지목된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책 지원체제(기관) 세분화 또는 일원화와 관련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세분화(26.4%) > 일원화(18.6%)’로 나타나, 통합지원 체제 보다는 각 기업 대상별 맞춤형 정책 요구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소기업·소상공인 보다는 중기업 규모에서 세분화 요구가 다소 더 높았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점의 기업규모별 구분체계를 ‘중견·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새롭게 재편할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중점적

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중기업은 ‘자생력 제고 방안’을 꼽은 비율이 높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보호책 마련’이 중요하다 답한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요구의 상이함과 그에 따른 지원 대상 관점의 전환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영세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 보호를 통한 기반구축 지원’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능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 지원’을 통해 ‘기업규모별 맞춤형 성장사다리’ 정책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최근 경영상황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내수불황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영업규모(매출)와 채산성(순이익) 모두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채산성 악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음식숙박 및 도소매와 같은 생활형 자영업 부문의 경영악화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거시적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해당 부문에 대한 미시적 맞춤형 정책지원이 신속하게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 애로’와 ‘매출감소’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 기관이 실시한 최근의 경영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와도 상당히 유사하다.³⁾ 각 항목별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비율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전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보다는, 개별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들의 절대 다수(96.2%)는 최근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현 사업체 운용에 대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업종전환이나 폐업 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조사응답 기업 대부분이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자구책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업종이 속한 시장의 새로운 유효수요 창출이 전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한된 고객확보를 위한 출혈경쟁 심화로 추가 고통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기업 차원의 지원책을 넘어서서 신시장 개척, 새로운 구매자 연결제도의 마련 등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신규 유효수요 창출 경제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복수응답 기준)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중견기업('13.5월)	내수부진(46.2%)	제품가격 하락(31.7%)	환율변동(27.9%)
중소기업('13.3월)	판매부진(29.9%)	환율·가격변동(28.2%)	자금조달(17.6%)
소상공인('13.3월)	판매부진(33.0%)	과당경쟁(19.1%)	대기업 진출(17.5%)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본 서울지역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1.1%와 47.9%가 각각 매출증대 및 고용증가를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영업활성화(매출신장)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 제고 방안은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신용보증의 고용창출 효과는 기업체 부도예방에 따른 ‘고용유지’ 개념까지 연계하여 고려될 경우 이에 평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기업의 64.0%는 ‘낮은 이자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용의 가장 큰 편익으로 꼽고 있었다. 이는 ‘신용보증’과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십분 발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SEOUL ECONOMIC BULLETIN

인포그래픽스

■ 서울의 벤처기업 최근 5년간 1.7배로 증가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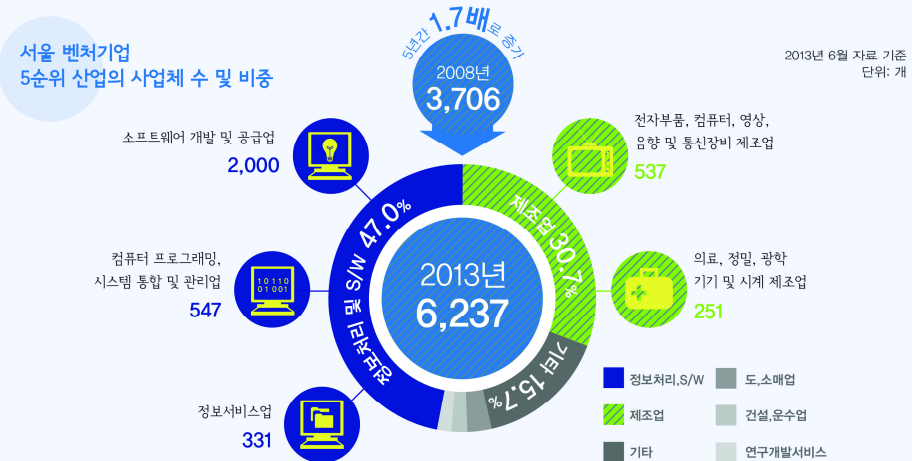
서울의 벤처기업

최근 5년간 1.7배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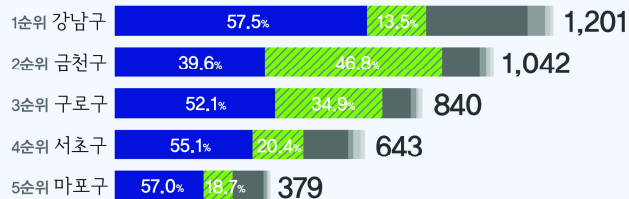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서울의 벤처기업 최근 5년간 1.7배로 증가!

2013년 산업 중 정보처리 및 S/W가 47.0%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서울 벤처기업 5순위 자치구



자료: 2008년 6월, 2013년 6월 벤처인 (기술보증기금)

서울의 벤처기업 최근 5년간 1.7배로 증가!

2013년 산업 중 정보처리 및 S/W가 47.0%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정보처리 및 S/W’ 산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 정보처리 및 S/W 세부 산업 중 1순위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00개, 2순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47개, 3순위는 정보서비스업 331개 순.
 - 두 번째 큰 비중은 제조업으로 30.7% 차지. 세부 산업 중 1순위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537개, 2순위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 251개 순.
- 벤처기업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
 - 강남구 1,201개, 금천구 1,042개, 구로구 840개, 서초구 643개, 마포구 379개 순
 - 강남구는 정보처리, S/W의 비중이 57.5%로 가장 크고, 금천구는 제조업이 46.8%로 비중이 가장 큼
- 서울의 벤처기업 대부분은 ‘컴퓨터 관련 업종’
 - 가장 많은 비중은 정보처리 및 S/W이며, 제조업의 세부 산업 1순위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주) S/W: 소프트웨어

기타: 농,어,임,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전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기술 및 서비스업

자료: 2008년 6월, 2013년 6월 벤처인 (기술보증기금)

〈표 1〉 2008년 대비 2013년 서울 벤처기업 수 비교

(단위 : 개)

		합 계	제조업	건설, 운수	도소매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기타
2008	업 체 수	3,706	1,407	106	208	1,440	66	479
	(%)	100.0	38.0	2.9	5.6	38.9	1.8	12.9
	전 국	15401						
2013	업 체 수	6,237	1,916	119	183	2,933	104	982
	(%)	100.0	30.7	1.9	2.9	47.0	1.7	15.7
	전 국	28,765						

〈표 2〉 2013년 5순위 세부 산업의 사업체 수

(단위 : 개)

대분류	중분류	업체수
정보처리,S/W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000
정보처리,S/W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47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37
정보처리,S/W	정보서비스업	331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1

〈표 3〉 2013년 5순위 자치구의 산업과 사업체 수

(단위 : 개)

		합 계	제조업	건설, 운수	도소매업	정보처리 , S/W	연구개발 서비스	기타
강남구	업 체 수	1201	162	14	48	690	8	279
	(%)	100.0	13.5	1.2	4.0	57.5	0.7	23.2
금천구	업 체 수	1042	488	10	18	413	10	103
	(%)	100.0	46.8	1.0	1.7	39.6	1.0	9.9
구로구	업 체 수	840	293	6	15	438	11	77
	(%)	100.0	34.9	0.7	1.8	52.1	1.3	9.2
서초구	업 체 수	643	131	19	13	354	11	115
	(%)	100.0	20.4	3.0	2.0	55.1	1.7	17.9
마포구	업 체 수	379	71	4	8	216	5	75
	(%)	100.0	18.7	1.1	2.1	57.0	1.3	19.8

SEOUL ECONOMIC BULLETIN

경제동향

■ 요약

■ 생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출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생
산

- 서울의 5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2.4로 전년동월대비 5.8% 감소
- 5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9.5%, 0.2% 감소하여 경기수축기

소
비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945억원으로 전국(3조7,225억원)의 30.8%를 차지
- 5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대형마트는 1.5% 감소

고
용

- 서울의 5월 취업자수는 511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0%)이 감소
- 서울의 5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

물
가

- 2013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부
동
산

-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은 강북지역 특히 용산구와 성북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07% 하락
-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15% 상승하며 9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금
융

- 서울의 5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6조 5,391억 원으로 전월대비 0.1% 증가, 그중 가계대출은 175조 3,908억 원으로 전월대비 0.4% 증가
- 서울의 5월 신설법인수는 2,140개로 건설·설비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3.0% 증가
- 서울의 5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0.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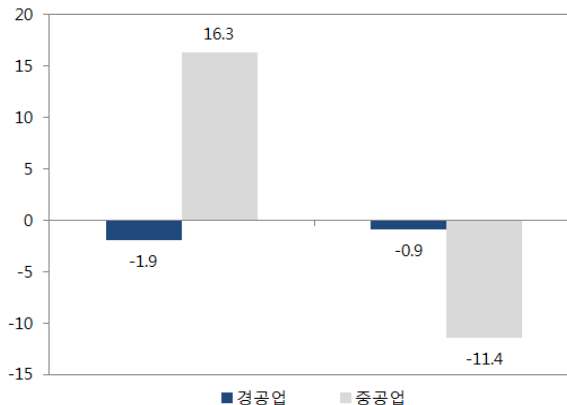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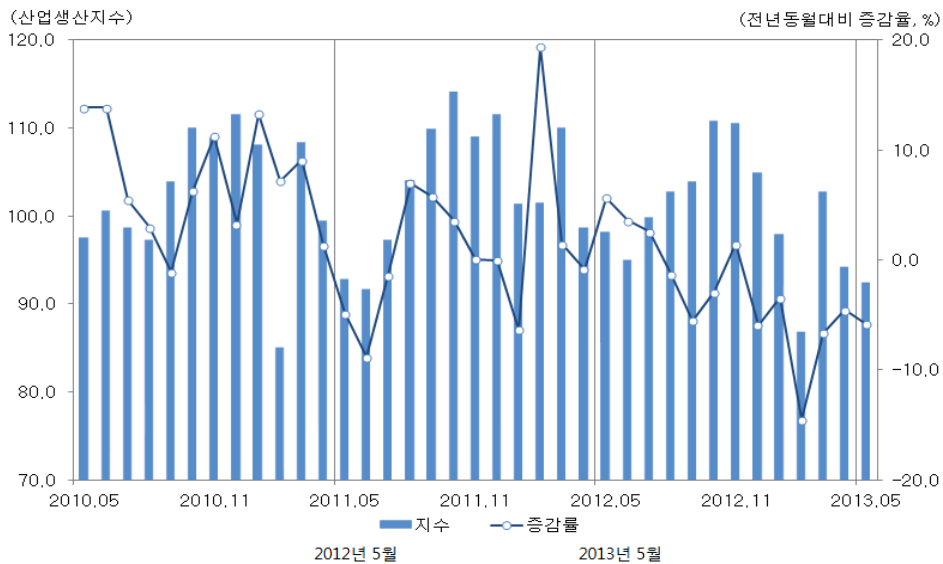
수
출
입

- 서울의 5월 수출은 53.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8.5% 증가,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5월 수입은 10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품목별로는 반도체, 국가별로는 역시 중국이 1순위 차지

| 생 · 산 |

■ 서울의 5월 제조업생산지수 92.4(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5.8% 감소

- 경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9% 감소, 중공업부문은 11.4% 감소
- 전년동월대비 섬유제품(26.2%), 금속가공(16.7%), 전기·가스·증기업(6.3%) 증가, 기계장비(-30.9%),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9.9%), 의복 및 모피(-4.6%)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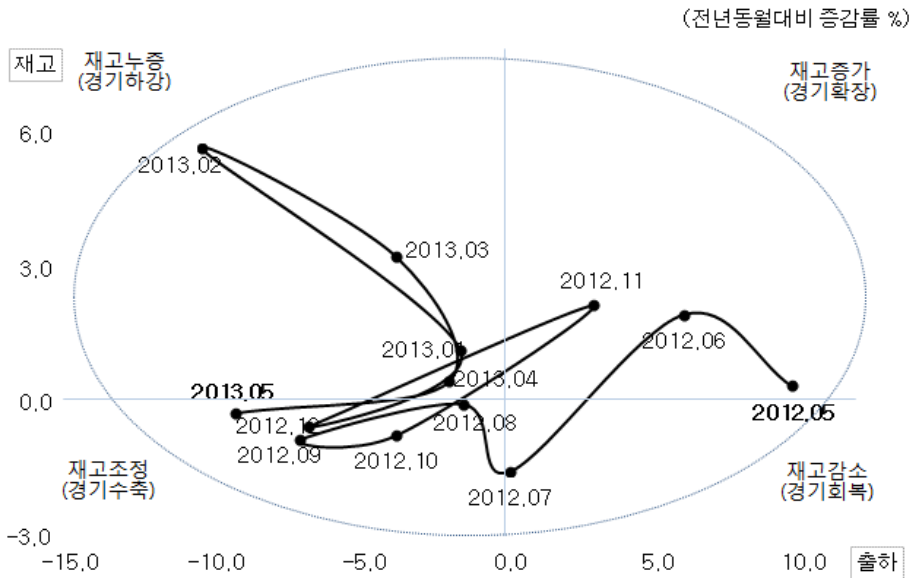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5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감소로 경기수축기

- 서울의 5월 출하지수는 91.0(2010=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9.5% 감소
- 서울의 5월 재고지수는 102.3(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0.2% 감소
- 출하, 재고 모두 감소하여 경기수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 · 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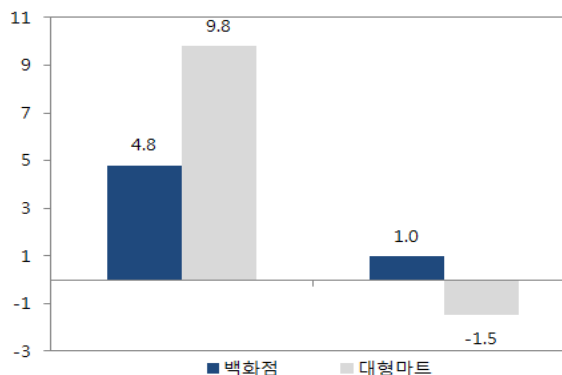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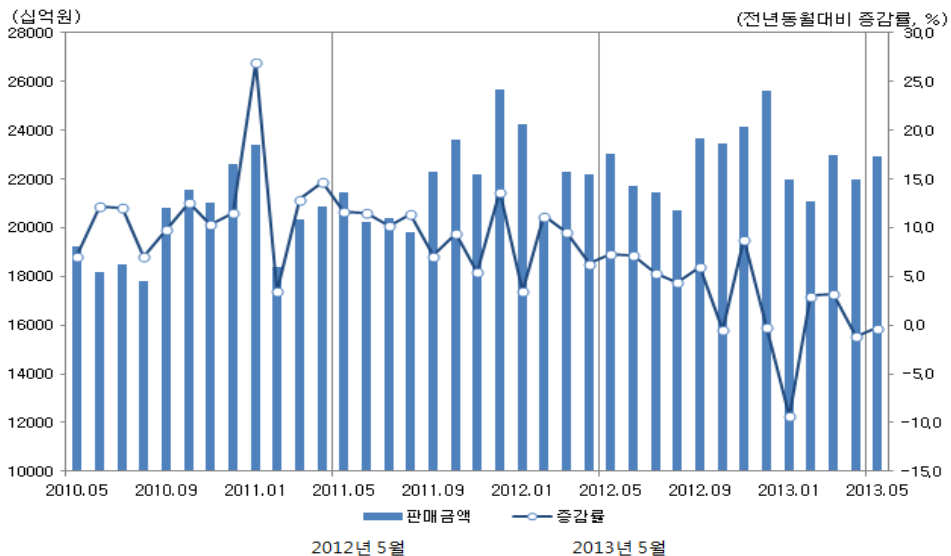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 · 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945억원으로 전국(3조7,225억원)의 30.8%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1,495억원으로 전국(2조5,549억원)의 45.0%,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1,450억원으로 전국(3조7,225억원)의 30.8%를 차지
-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8.4로 전년동월대비 2.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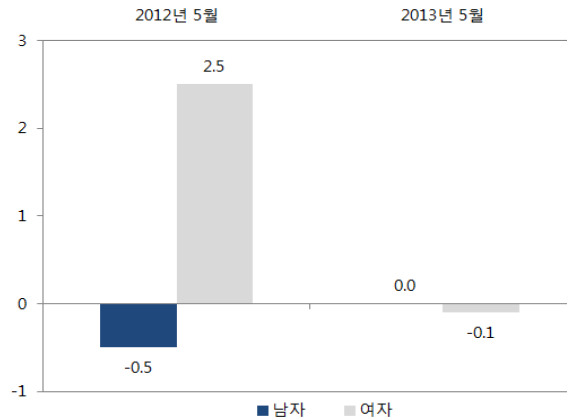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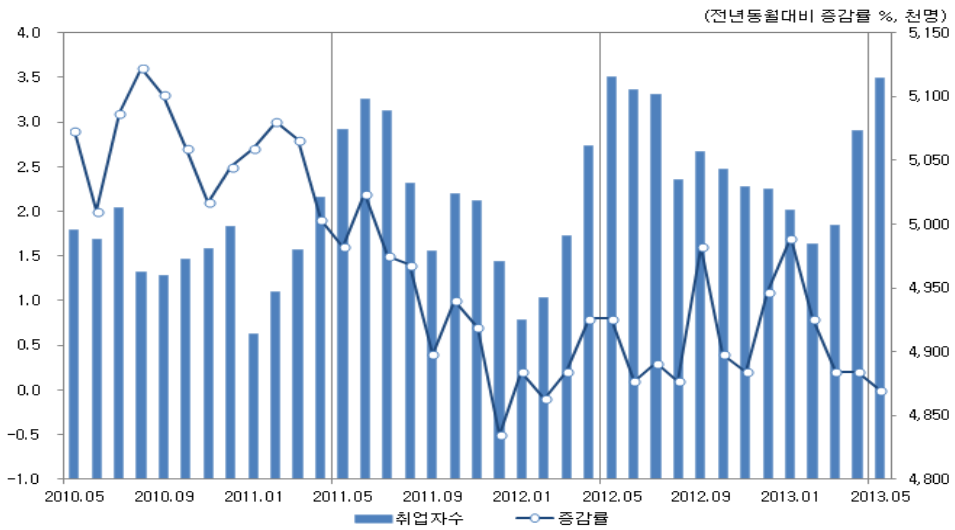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취·업·자 |

■ 서울의 5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보합세

- 서울의 5월 취업자는 511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0%)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5만7천명, 여자는 225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천명(0.0%)증가, 여자는 2천명(-0.1%)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7만4천명(9.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만3천명(1.6%) 각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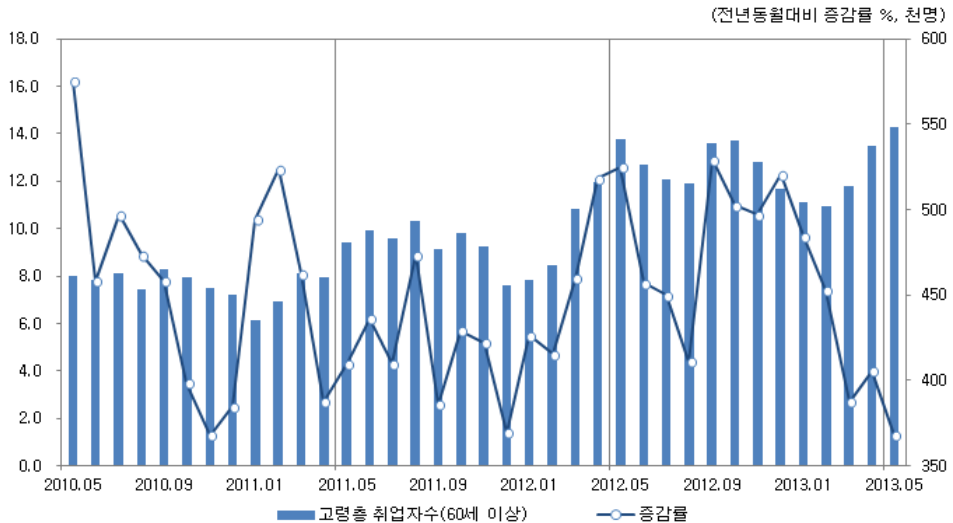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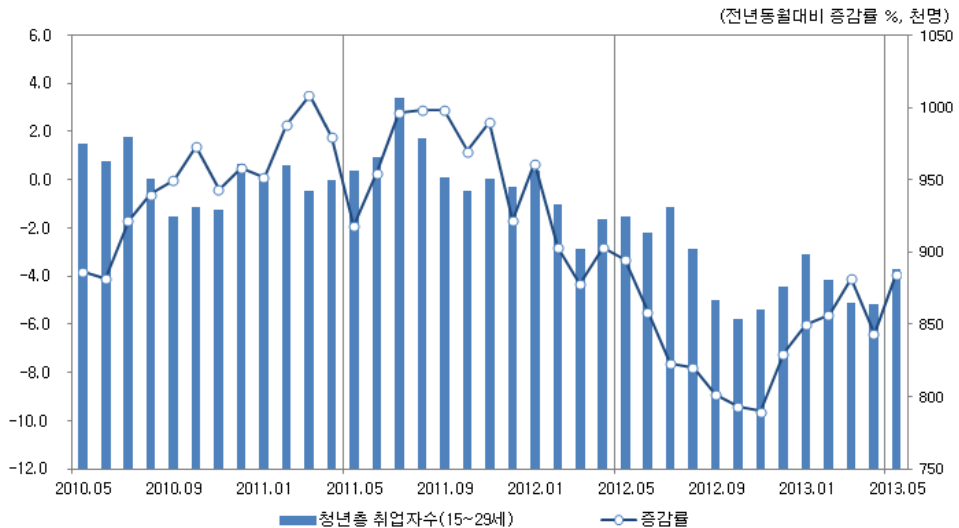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5월 청년층(15세~29세) 여전히 하락,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꾸준히 증가

- 서울의 5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8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하며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서울의 5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완화, 고령층 취업자 증가폭은 감소 추세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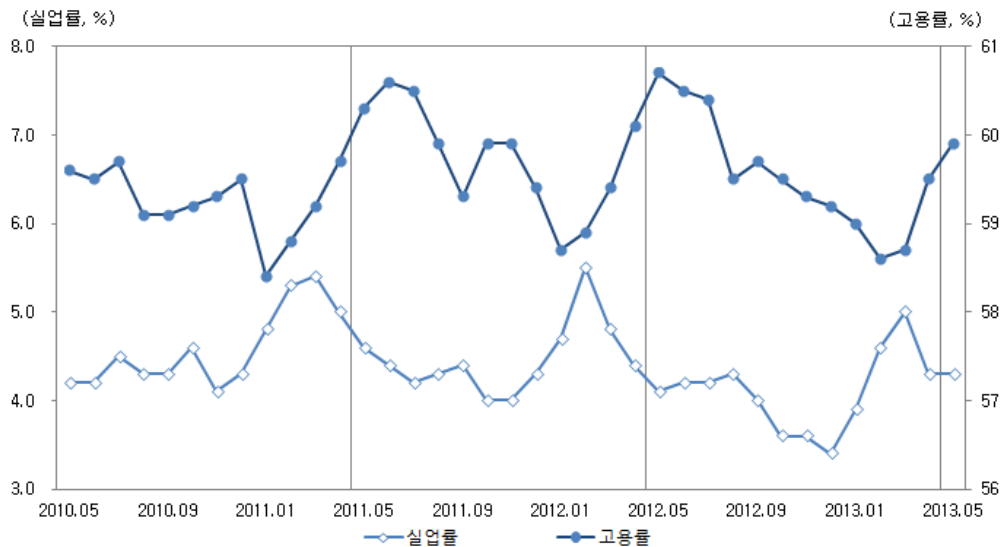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5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5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7%로 전년동월대비 0.5%p 감소, 여자는 50.9%로 0.9%p 감소
- 2013년 5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60.4%)에 비해 0.5%p 낮은 수준

■ 서울의 5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5월 실업자는 22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천명(5.9%)이 증가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4%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여자는 4.2%로 0.6%p 증가
- 2013년 5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3.0%)에 비하여 1.3%p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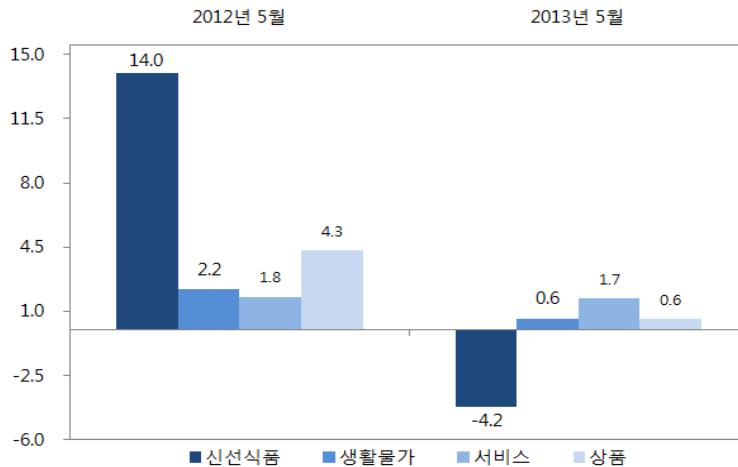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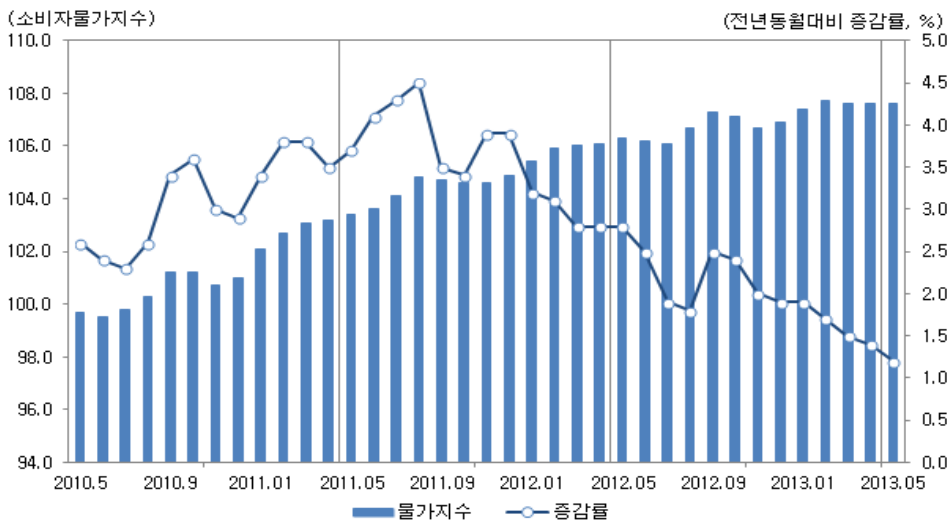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 서울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2013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2010년=100.0)로 전년동월대비 1.2%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2.9%), 신선식품지수(-4.2%)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업제품(0.4%), 전기·수도·가스(6.5%), 집세를 포함한 서비스(1.7%), 생활물가지수(0.6%) 부문은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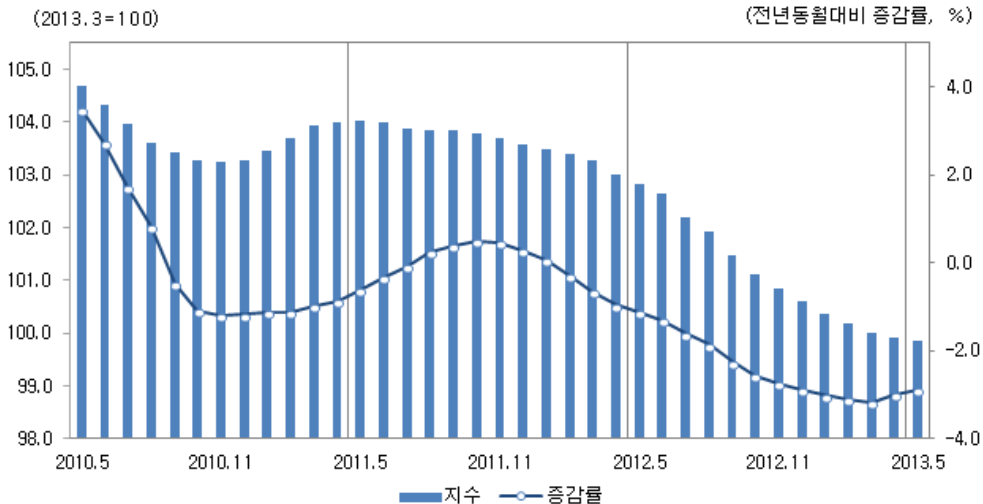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7% 하락

- 강남지역(0.01%), 강북지역(-0.15%) 등 금천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월 대비 하락
 - 하락률 상위지역: 용산구(-0.74%), 성북구(-0.25%), 동작구(-0.12%), 강서구(-0.09%)
- 단독주택(-0.04%), 연립주택(-0.13%), 아파트(-0.05%) 등 하락세 지속

■ 전국의 5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1% 하락

- 광역시(0.20%), 기타지방(0.08%) 모두 전월대비 상승, 수도권(-0.15%)은 하락세 지속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매매가격(평균 1,640만원)은 전월(1,642만원)대비 0.2% 하락
- 매매거래건수(6,843건)는 전월(5,807건) 대비 17.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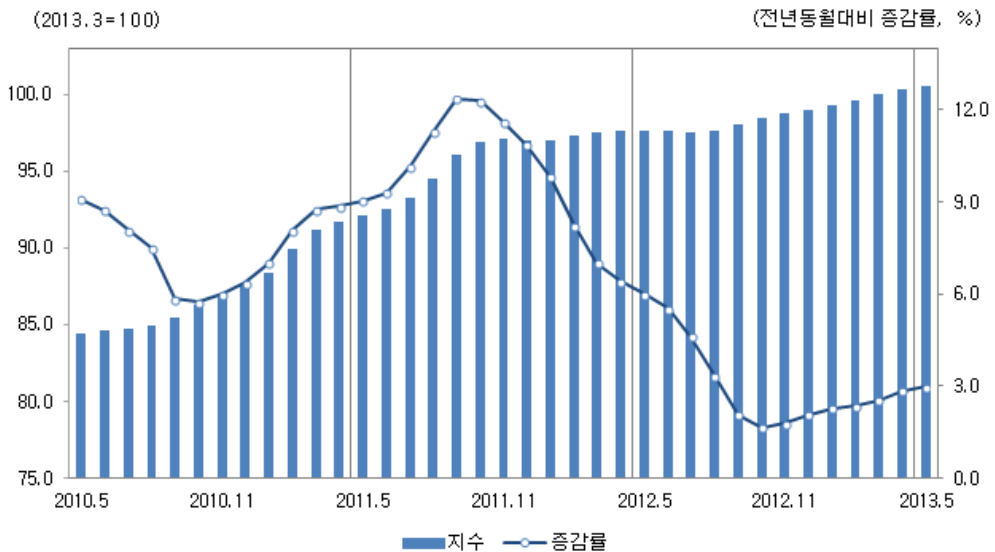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15% 상승

- 강남지역(0.18%), 강북지역(0.13%) 등 성북구, 노원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서대문구(0.54%), 성동구(0.48%), 관악구(0.4%), 영등포구(0.28%)
- 단독주택(0.2%), 연립주택(0.4%), 아파트(0.5%) 등 상승세 지속

■ 전국의 5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19% 상승

- 광역시(0.22%), 기타지방(0.16%), 수도권(0.18%) 모두 전월대비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전세가격(평균 889만원)은 전월(882만원)대비 0.8% 증가
- 전세거래건수(7,674)는 전월(9,902건) 대비 22.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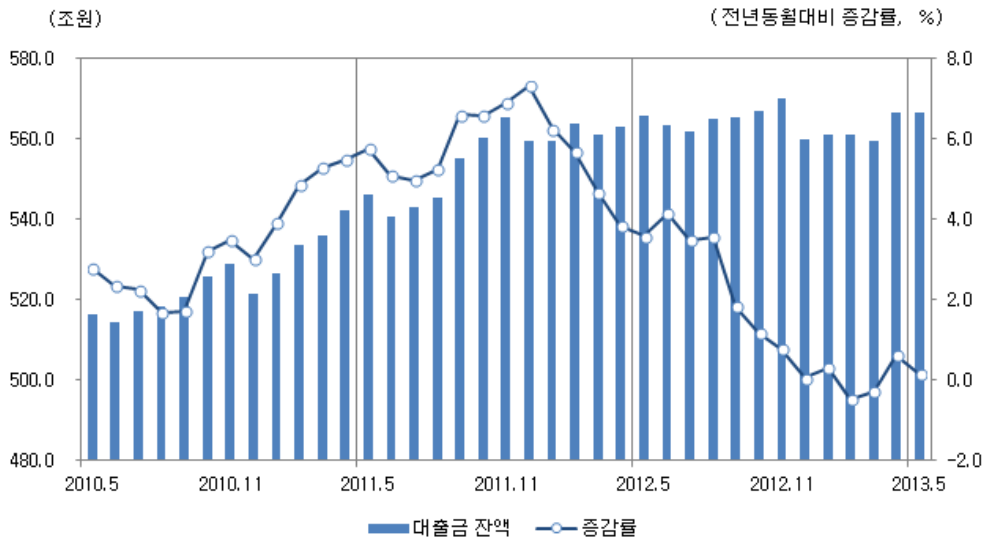
| 가 · 계 · 대 · 출 |

■ 5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566조 5,391억원)은 전월(566조 4,677억원)대비 0.01% 증가
- 그 중 예금은행(455조 9,592억원)과 비예금은행(110조 5,799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2% 감소, 1.5% 증가

■ 5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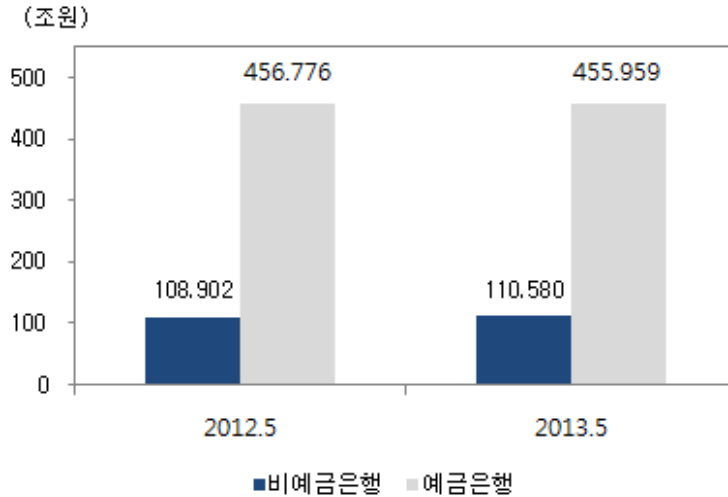
- 전체 대출금 잔액(1,471조 1,090억원)은 전월(1,466조 974억원)대비 0.34%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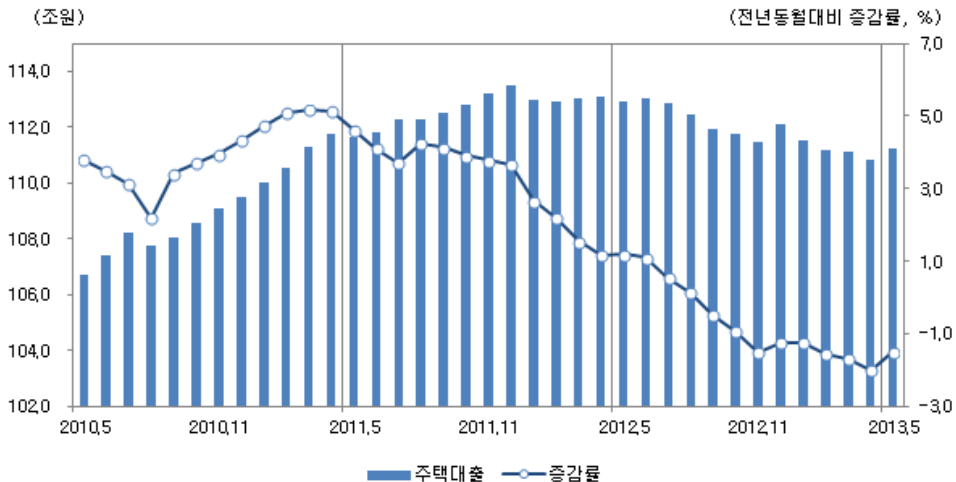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5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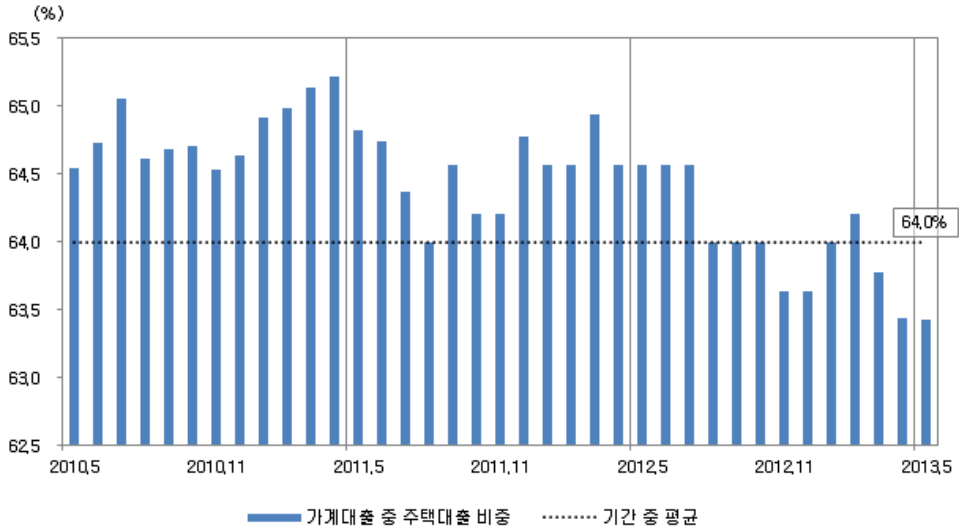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75조 3,908억원)은 전월(174조 6,373억원)대비 0.4% 증가
- 그 중 주택대출(111조 2,492억원)은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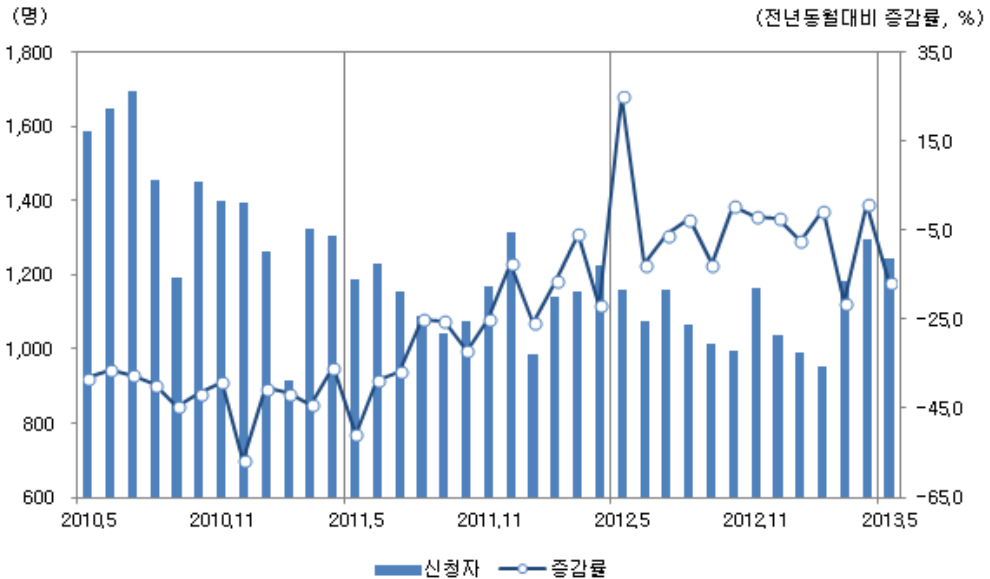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5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

- 개인파산 신청자(1,244명)은 전월대비 4.0% 감소, 전년동월대비 7.3% 증가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1.6%)은 전년동월대비 81.8%p 감소, 면책 기각률(2.1%)은 전년동월대비 84.6%p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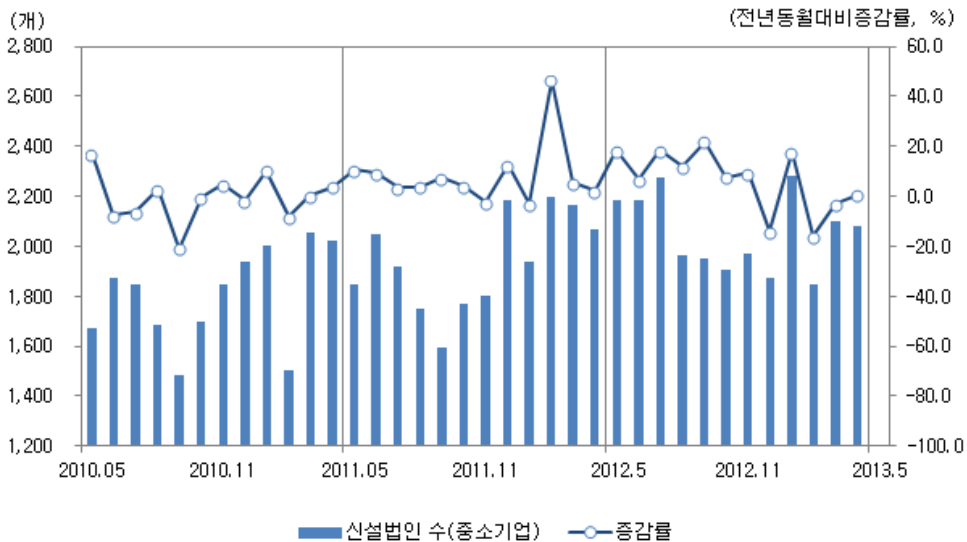
| 신 · 설 · 부 · 도 · 법 · 인 |

■ 서울의 5월 신설법인 수 건설 및 설비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140개로 전월대비 3.0%(62개) 증가, 전년동월대비 2.1%(46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9.3%(11개) 증가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0.7%(2개), 3.1%(51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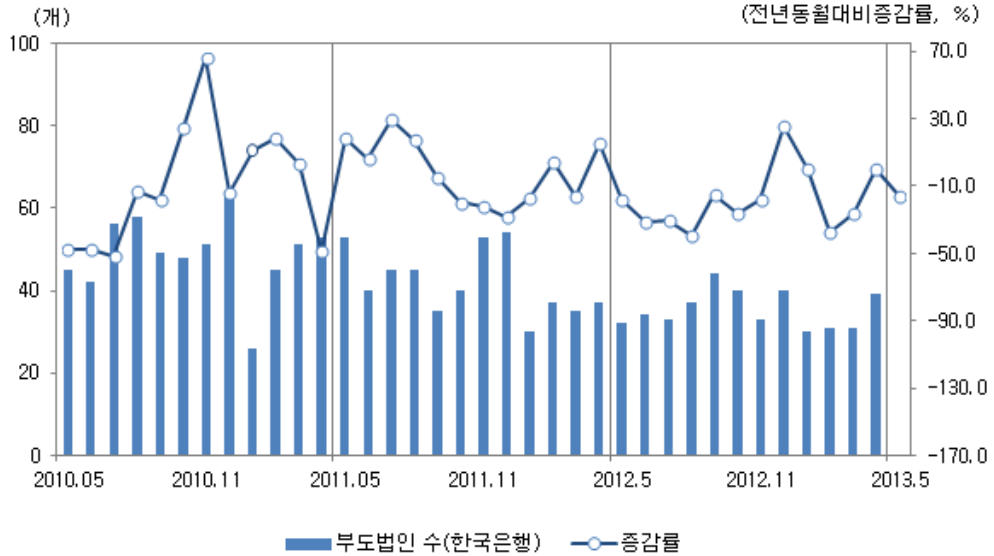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29개로 전월대비 25.6%(10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9.4%(3개) 감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월대비 37.5%(6개) 감소,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각각 12.5%(2개), 40.0%(2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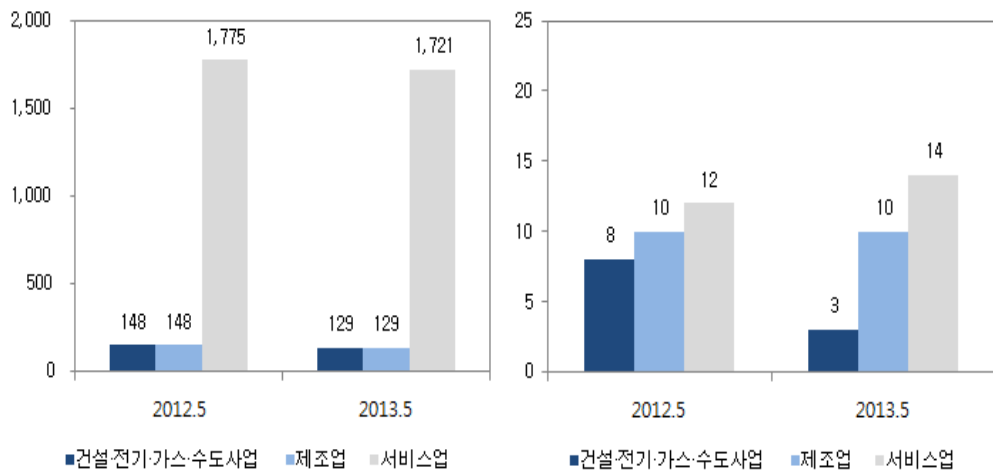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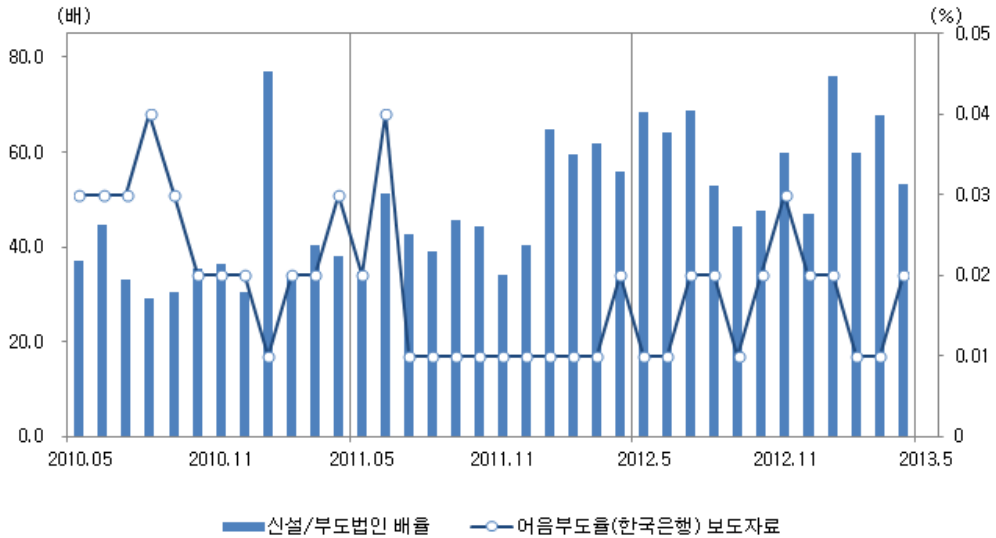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 현황

■ 5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

- 5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73.8배로 전월(53.3배)보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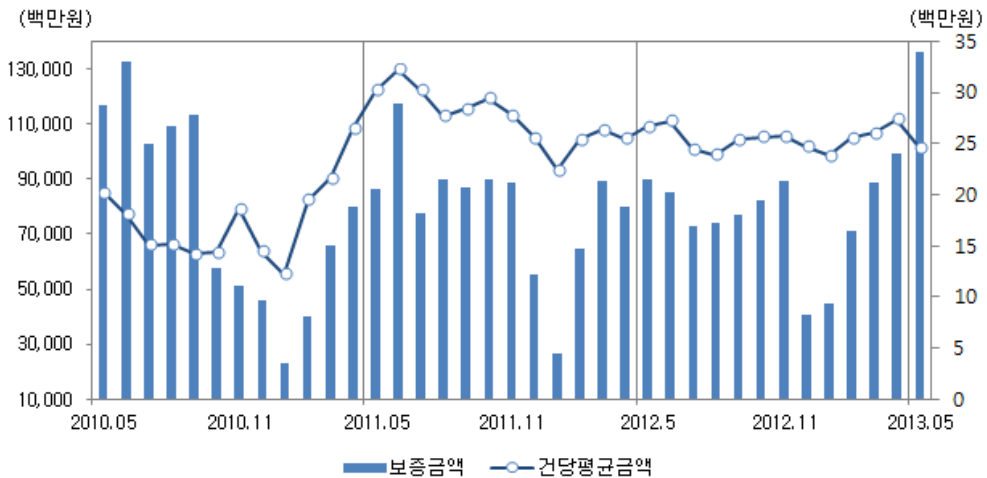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35,870백만원, 5,531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37.3%, 53.0% 증가,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0.2% 감소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 건수는 각각 51.7%, 64.6%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7.7%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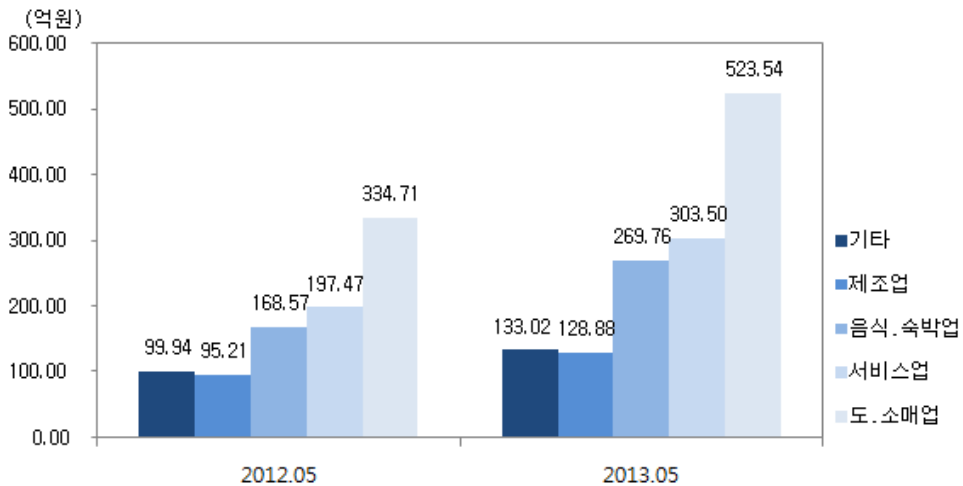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증가

- 5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9.5%로 전월(9.1%) 대비 0.4%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8.5%로 전월(36.8%) 대비 1.7%p 증가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8.1%로 전월(7.8%)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6.7%로 전월(36.5%)대비 0.2%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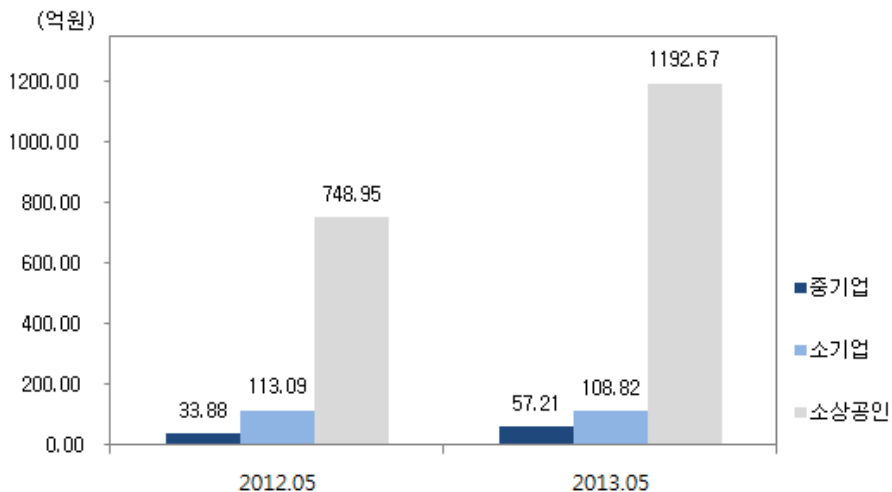
■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7.8%로 전월대비 4.2%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95.6%로 전월대비 1.8%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8.0%로 전월대비 2.0%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3.2%로 전월대비 0.7%p 감소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4.2%로 전월대비 2.2%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1.2%로 전월대비 1.1%p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5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53.8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8.5% 증가하였고 수입은 100.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83.5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하였고 수입은 424.4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4.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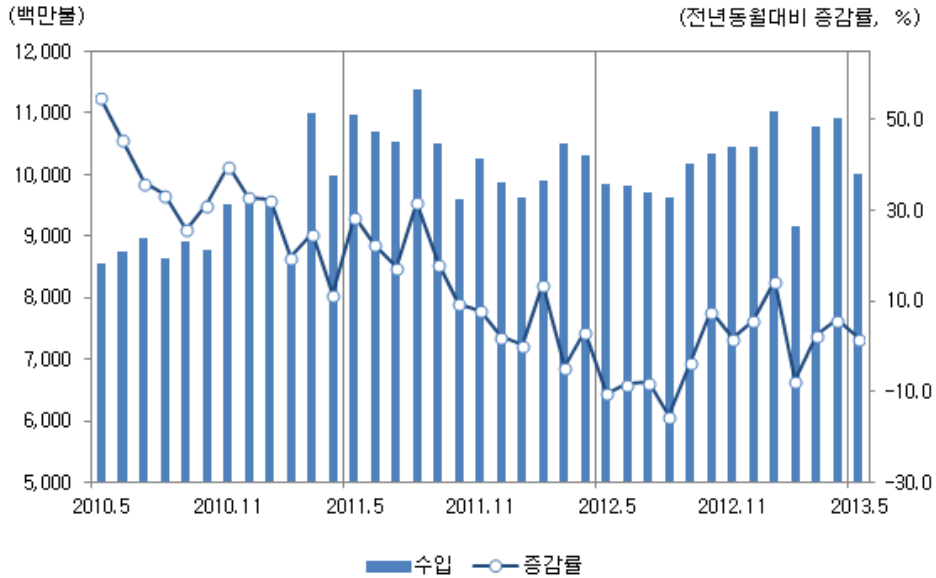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 542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편직물, 합성수지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865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석유제품, 컴퓨터, 자동차, 의류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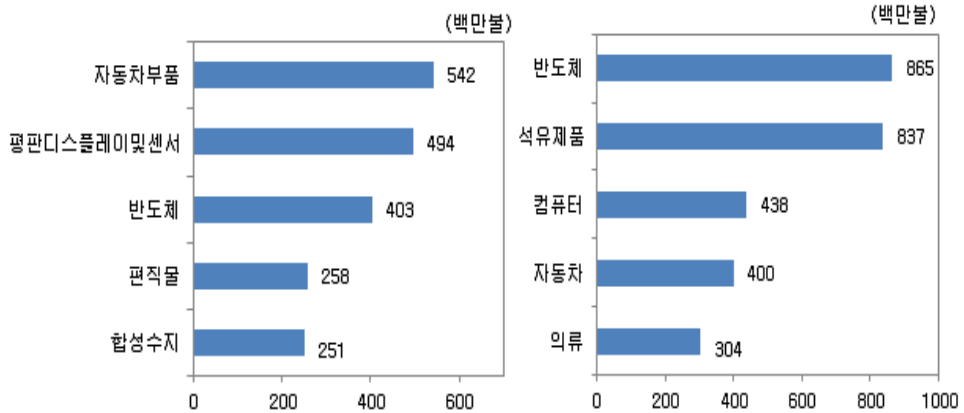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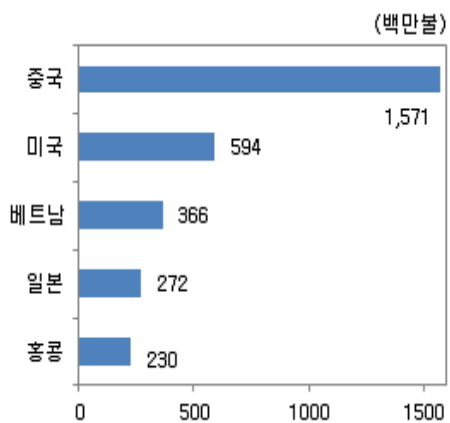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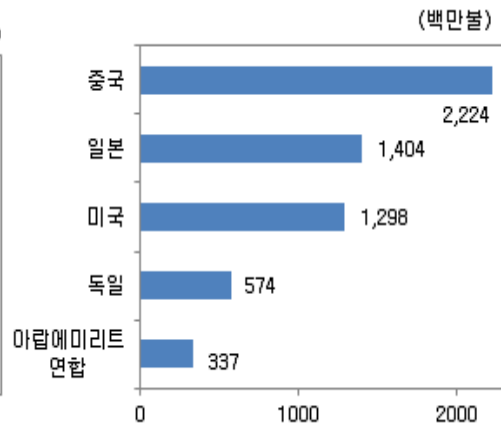
■ 서울의 5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한 1,571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2,224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아랍에미리트 연합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SEOUL ECONOMIC BULLETIN

부록: 통계표

부록
통계표

■ 생 산

■ 고 용

■ 금 융

■ 부동산

1. 광공업 산업생산·출하·재고 지수

<2010=100>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2010	100.0	—	100.0	—	104.3	—
2011	102.3	—	102.7	—	109.9	—
2012	102.9	—	104.1	—	109.4	—
2010. 1/4	98.6	94.0	104.1	96.3	98.8	100.8
2/4	96.4	103.7	95.1	103.1	92.9	95.6
3/4	94.9	101.8	92.0	101.0	99.0	97.8
4/4	110.0	102.3	108.8	100.4	104.3	100.9
2011. 1/4	107.3	103.0	111.5	103.8	99.8	101.9
2/4	92.5	99.1	90.8	98.2	100.6	103.7
3/4	98.6	105.5	97.2	106.7	107.8	106.2
4/4	110.6	102.9	111.4	103.1	109.9	106.0
2012. 1/4	110.2	105.0	115.3	107.1	103.5	105.7
2/4	94.7	102.6	95.6	104.2	102.6	105.9
3/4	97.3	104.1	94.5	104.1	106.9	105.1
4/4	109.6	103.4	111.1	103.5	109.4	106.0
2013. 1/4	102.5	98.2	110.2	102.8	106.9	109.3
2011. 5	90.3	97.6	88.0	96.8	102.1	103.7
6	87.8	99.3	85.6	98.9	100.6	103.7
7	93.0	103.6	91.2	105.8	104.2	105.0
8	98.9	106.6	97.4	106.9	103.7	104.3
9	103.9	106.2	103.0	107.3	107.8	106.2
10	109.5	106.7	110.0	108.5	111.1	108.7
11	106.9	101.0	104.4	97.8	110.6	106.9
12	115.4	101.1	119.9	102.9	109.9	106.0
2012. 1	109.1	103.0	114.4	105.1	105.1	104.3
2	108.7	106.9	115.1	109.7	101.1	102.4
3	112.7	105.2	116.3	106.4	103.5	105.7
4	98.7	103.2	101.7	105.0	102.5	104.4
5	94.6	102.1	94.8	103.6	102.5	104.1
6	90.8	102.6	90.3	104.1	102.6	105.9
7	95.3	105.7	91.1	105.5	102.6	103.5
8	97.8	105.3	96.1	105.7	103.7	104.5
9	98.7	101.2	96.3	101.1	106.9	105.1
10	105.9	103.1	104.9	103.2	110.3	107.9
11	110.7	104.7	110.8	103.9	113.0	109.2
12	112.2	102.3	117.5	103.5	109.4	106.0
2013. 1	107.1	95.3	114.6	99.8	106.4	105.0
2	94.6	98.9	104.1	104.7	106.9	109.1
3	105.8	100.3	112.0	103.9	106.9	109.3
4p	95.1	96.1	100.4	100.7	103.0	104.5
5p	89.8	95.6	87.0	94.4	102.3	103.7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산업생산 · 출하 · 재고 증감률

<2010=100, 계절조정, 단위: %>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2010	-	5.2	100.0	-	6.7	100.0	-	1.3	104.3
2011	-	2.3	102.3	-	2.7	102.7	-	5.4	109.9
2012	-	0.6	102.9	-	1.4	104.1	-	-0.5	109.4
2010. 1/4	-2.7	8.5	98.6	1.6	10.8	104.1	1.0	-1.9	98.8
2/4	10.3	5.9	96.4	7.1	6.9	95.1	-5.2	-4.7	92.9
3/4	-1.8	-0.2	94.9	-2.0	1.8	92.0	2.3	-3.5	99.0
4/4	0.5	6.7	110.0	-0.6	6.9	108.8	3.2	1.3	104.3
2011. 1/4	0.7	8.8	107.3	3.4	7.1	111.5	1.0	1.0	99.8
2/4	-3.8	-4.0	92.5	-5.4	-4.5	90.8	1.8	8.3	100.6
3/4	6.5	3.9	98.6	8.7	5.7	97.2	2.4	8.9	107.8
4/4	-2.5	0.5	110.6	-3.4	2.4	111.4	-0.2	5.4	109.9
2012. 1/4	2.0	2.7	110.2	3.9	3.4	115.3	-0.3	3.7	103.5
2/4	-2.3	2.4	94.7	-2.7	5.3	95.6	0.2	2.0	102.6
3/4	1.5	-1.3	97.3	-0.1	-2.8	94.5	-0.8	-0.8	106.9
4/4	-0.7	-0.9	109.6	-0.6	-0.3	111.1	0.9	-0.5	109.4
2013.1/4p	-5.2	-7.1	102.4	-0.8	-4.5	110.1	3.6	3.7	107.3
2011. 5	-2.8	-4.6	90.3	-2.1	-4.7	88.0	0.7	4.2	102.1
6	1.7	-8.3	87.8	2.2	-8.4	85.6	0.0	8.3	100.6
7	4.3	-1.0	93.0	7.0	2.2	91.2	1.3	5.1	104.2
8	2.9	6.9	98.9	1.0	7.5	97.4	-0.7	4.9	103.7
9	-0.4	5.6	103.9	0.4	7.2	103.0	1.8	8.9	107.8
10	0.5	3.7	109.5	1.1	6.2	110.0	2.4	6.4	111.1
11	-5.3	-1.3	106.9	-9.9	-1.6	104.4	-1.7	6.6	110.6
12	0.1	-0.7	115.4	5.2	2.7	119.9	-0.8	5.4	109.9
2012. 1	1.9	-7.4	109.1	2.1	-8.0	114.4	-1.6	2.6	105.1
2	3.8	17.1	108.7	4.4	17.9	115.1	-1.8	1.4	101.1
3	-1.6	1.3	112.7	-3.0	3.2	116.3	3.2	3.7	103.5
4	-1.9	-0.7	98.7	-1.3	2.9	101.7	-1.2	0.9	102.5
5	-1.1	4.8	94.6	-1.3	7.7	94.8	-0.3	0.4	102.5
6	0.5	3.4	90.8	0.5	5.5	90.3	1.7	2.0	102.6
7	3.0	2.5	95.3	1.3	-0.1	91.1	-2.3	-1.5	102.6
8	-0.4	-1.1	97.8	0.2	-1.3	96.1	1.0	0.0	103.7
9	-3.9	-5.0	98.7	-4.4	-6.5	96.3	0.6	-0.8	106.9
10	1.9	-3.3	105.9	2.1	-4.6	104.9	2.7	-0.7	110.3
11	1.6	3.6	110.7	0.7	6.1	110.8	1.2	2.2	113.0
12	-2.3	-2.8	112.2	-0.4	-2.0	117.5	-2.9	-0.5	109.4
2013. 1	-6.8	-1.8	107.1	-3.6	0.2	114.6	-0.9	1.2	106.4
2	3.8	-13.0	94.6	4.9	-9.6	104.1	3.9	5.7	106.9
3	1.4	-6.1	105.8	-0.8	-3.7	112.0	0.2	3.3	106.9
4p	-4.2	-3.6	95.1	-3.1	-1.3	100.4	-4.4	0.5	103.0
5p	-0.5	-5.1	89.8	-6.3	-8.2	87.0	-0.8	-0.2	102.3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전월비는 계절조정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2013년 5월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2012.3	2013.2	2013.3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8,430	8,523	8,531	101	1.2
경제활동인구	5,331	5,299	5,343	12	0.2
(참가율)	(63.2)	(62.2)	(62.6)	(-0.6p)	-
남 자	2,988	2,965	2,987	-1	0.0
(참가율)	(73.4)	(72.4)	(72.9)	(-0.5p)	-
여 자	2,344	2,334	2,356	12	0.5
(참가율)	(53.7)	(52.7)	(53.1)	(-0.6p)	-
취 업 자	5,115	5,073	5,114	-1	0.0
(고용률)	(60.7)	(59.5)	(59.9)	(-0.8p)	-
농림어업	7	3	3	-4	-60.6
광공업	514	455	456	-58	-11.3
· 제조업	513	454	455	-58	-11.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595	4,616	4,656	61	1.3
· 건설업	371	334	342	-28	-7.6
· 도소매·음식숙박업	1,329	1,305	1,311	-18	-1.4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84	2,091	2,117	33	1.6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12	886	886	74	9.2
실 업 자	216	226	229	13	5.9
(실업률)	(4.1)	(4.3)	(4.3)	(0.2p)	-
비경제활동인구	3,099	3,224	3,188	89	2.9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2013년 5월 직업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12.3	2013.2	2013.3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5,061	4,999	5,073	12	0.2
직 업 별	관리자전문가	1,406	1,450	1,476	71	5.0
	사무종사자	1,002	1,047	1,061	59	5.9
	서비스판매종사자	1,233	1,194	1,199	-34	-2.8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3	6	8	-4	-34.9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407	1,302	1,328	-79	-5.6
성 별	남자	2,832	2,817	2,843	11	0.4
	여자	2,228	2,183	2,230	2	0.1
종 사 상 지 위 별	비임금근로자	1,173	1,085	1,095	-78	-6.6
	자영업주	1,007	930	931	-77	-7.6
	무급가족종사자	166	155	164	-1	-0.7
	임금근로자	3,888	3,915	3,978	90	2.3
	상용근로자	2,323	2,440	2,482	159	6.8
	임시근로자	1,177	1,104	1,116	-61	-5.2
	일용근로자	387	371	380	-7	-1.9
취 업 시 간 대 별	36시간 미만	569	518	535	-34	-6.0
	1-17시간	219	178	179	-39	-18.0
	18-35시간	351	339	356	5	1.5
	36시간 이상	4,429	4,412	4,473	44	1.0
	36-53시간	3,157	3,362	3,331	174	5.5
	54시간이상	1,273	1,050	1,142	-130	-10.2
	일 시 휴 직	62	70	64	2	3.5
	주당평균취업시간	45.4	44.4	44.9	-0.5	-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3. 취업자·실업자·실업률·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p>

연 도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08. 11	4,897	-1.6	194	-4.9	3.8	3,189	5.3
12	4,853	-1.2	195	-6.6	3.9	3,237	4.5
2009. 10	4,840	-1.4	192	3.4	3.8	3,306	3.2
11	4,879	-0.4	216	11.3	4.2	3,248	1.8
12	4,877	0.5	208	6.6	4.1	3,261	0.7
2010. 4	4,925	1.9	264	3.9	5.1	3,184	-1.2
5	4,995	2.9	219	-9.1	4.2	3,167	-1.7
6	4,988	2.0	221	-5.8	4.2	3,177	-0.7
7	5,013	3.1	234	-4.8	4.5	3,144	-2.4
8	4,962	3.6	223	-0.3	4.3	3,209	-3.4
9	4,960	3.3	225	5.1	4.3	3,210	-3.3
10	4,972	2.7	239	24.1	4.6	3,186	-3.6
11	4,981	2.1	213	-1.5	4.1	3,206	-1.3
12	4,998	2.5	224	7.3	4.3	3,184	-2.4
2011. 4	5,021	1.9	263	-0.2	5.0	3,125	-1.9
5	5,074	1.6	243	11.1	4.6	3,097	-2.2
6	5,098	2.2	236	6.7	4.4	3,079	-3.1
7	5,089	1.5	226	-3.5	4.2	3,093	-1.6
8	4,962	1.4	223	1.7	4.3	3,141	-2.1
9	4,979	1.4	223	107	4.3	3,141	-2.1
10	5,024	1.0	210	-12.0	4.0	3,147	-1.2
11	5,018	0.7	208	-2.4	4.0	3,150	-1.8
12	4,971	-0.5	223	-0.3	4.3	3,181	-0.1
2012. 1	4,925	0.2	241	-2.3	4.7	3,220	-0.8
2	4,925	-4.0	287	13.0	5.5	3,168	-0.6
3	4,991	0.2	253	-11.5	4.8	3,164	0.7
4	5,061	0.8	233	-11.7	4.4	3,124	0.0
5	5,115	0.8	216	-11.1	4.1	3,099	0.1
6	5,105	0.1	226	-4.2	4.2	3,110	1.0
7	5,102	0.3	221	-2.0	4.2	3,130	1.2
8	5,035	0.1	224	-1.1	4.3	3,201	1.9
9	5,057	1.6	212	-8.3	4.0	3,197	0.6
10	5,043	0.4	188	-10.4	3.6	3,241	3.0
11	5,029	0.2	188	-9.4	3.6	3,264	3.6
12	5,027	1.1	178	-20.0	3.4	3,289	3.4
2013. 1	5,011	1.7	204	-15.6	3.9	3,285	2.0
2	4,984	0.8	241	-16.0	4.6	3,283	3.6
3	4,999	0.2	265	4.7	5.0	3,251	2.7
4	5,073	0.2	226	-2.9	4.3	3,224	3.2
5	5,114	0.0	229	5.9	4.3	3,188	2.9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주택매매가격 지수

<2013.3 = 100.0>

연 도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6	85.3	92.0	86.4	97.8	98.9	90.2	106.4
2007	88.0	96.9	93.9	100.3	102.5	97.8	106.9
2008	90.7	101.8	102.1	101.5	105.8	106.9	104.8
2009	92.0	104.5	104.1	105.0	108.5	107.9	109.0
2010	1	92.1	104.6	104.2	105.1	108.6	107.9
	2	92.4	104.9	104.3	105.5	108.9	108.0
	3	92.6	105.0	104.4	105.5	108.8	108.0
	4	92.8	104.9	104.3	105.5	108.7	107.7
	5	92.9	104.7	104.1	105.3	108.3	107.4
	6	92.9	104.3	103.7	104.9	107.6	106.7
	7	92.8	104.0	103.4	104.5	107.1	106.1
	8	92.7	103.6	103.1	104.1	106.6	105.7
	9	92.8	103.4	102.8	104.0	106.3	105.4
	10	93.0	103.3	102.7	103.9	106.1	105.1
	11	93.4	103.2	102.6	103.8	106.0	105.0
	12	93.8	103.3	102.6	104.0	106.1	105.0
2011	1	94.2	103.4	102.7	104.2	106.3	105.1
	2	94.9	103.7	102.8	104.6	106.6	105.3
	3	95.9	103.9	103.1	104.8	106.7	105.4
	4	96.7	104.0	103.2	104.8	106.7	105.4
	5	97.3	104.0	103.2	104.8	106.7	105.4
	6	97.8	104.0	103.2	104.7	106.5	105.4
	7	98.2	103.9	103.2	104.6	106.4	105.2
	8	98.7	103.9	103.1	104.6	106.2	105.1
	9	99.2	103.8	103.1	104.6	106.1	105.0
	10	99.6	103.8	103.0	104.5	106.0	105.0
	11	100.0	103.7	103.0	104.4	105.8	104.9
	12	100.2	103.6	102.9	104.3	105.6	104.8
2012	1	100.3	103.5	102.8	104.1	105.5	104.7
	2	100.5	103.4	102.8	104.0	105.3	104.6
	3	100.7	103.3	102.7	103.8	105.1	104.4
	4	100.8	103.0	102.5	103.5	104.6	104.1
	5	100.8	102.8	102.4	103.3	104.3	103.9
	6	100.8	102.6	102.2	103.0	104.0	103.6
	7	100.7	102.2	101.9	102.5	103.4	103.1
	8	100.6	101.9	101.7	102.2	103.0	102.8
	9	100.4	101.5	101.4	101.6	102.3	102.3
	10	100.3	101.1	101.0	101.2	101.7	101.6
	11	100.2	100.9	100.7	101.0	101.3	101.2
	12	100.2	100.6	100.6	100.6	100.9	100.9
2013	1	100.1	100.4	100.4	100.4	100.5	100.6
	2	100.0	100.2	100.2	100.2	100.3	100.3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0	99.9	99.9	99.9	99.9	99.8
	5	100.0	99.9	99.8	99.9	99.8	99.7

주: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2. 주택전세가격 지수

<2013.3=100.0>

연 도	전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6	73.8	74.0	73.9	74.1	73.1	72.6	73.4	
2007	75.7	76.8	77.9	75.7	74.7	75.9	73.7	
2008	76.9	77.6	80.6	74.9	73.4	76.3	71.0	
2009	79.5	82.3	83.8	80.8	79.3	80.4	78.4	
2010	1	79.8	82.6	83.9	81.3	79.7	80.6	79.1
	2	80.3	83.2	84.4	82.0	80.5	81.1	80.0
	3	80.8	83.8	85.1	82.5	81.1	81.9	80.4
	4	81.3	84.3	85.6	83.0	81.5	82.3	80.8
	5	81.7	84.5	85.8	83.2	81.7	82.5	81.1
	6	82.0	84.6	85.8	83.4	81.8	82.5	81.3
	7	82.2	84.7	85.8	83.5	81.9	82.4	81.5
	8	82.5	84.9	86.0	83.9	82.1	82.5	81.7
	9	83.0	85.5	86.5	84.5	82.6	83.0	82.3
	10	83.7	86.3	87.2	85.4	83.6	83.9	83.3
	11	84.6	87.0	87.7	86.3	84.5	84.6	84.4
	12	85.2	87.5	88.1	87.0	85.2	84.9	85.3
2011	1	85.9	88.4	88.8	87.9	86.1	85.8	86.4
	2	87.3	89.9	90.4	89.4	87.9	87.8	88.0
	3	88.9	91.1	91.8	90.5	89.5	89.8	89.3
	4	89.9	91.7	92.3	91.1	90.1	90.5	89.8
	5	90.7	92.1	92.6	91.5	90.4	90.8	90.0
	6	91.3	92.5	92.9	92.1	90.8	91.1	90.6
	7	92.0	93.3	93.6	93.0	91.8	92.0	91.7
	8	93.0	94.5	94.7	94.2	93.4	93.6	93.2
	9	94.3	96.0	96.3	95.8	95.5	95.8	95.2
	10	95.1	96.9	97.2	96.6	96.5	97.0	96.0
	11	95.6	97.1	97.5	96.7	96.7	97.5	96.2
	12	95.7	97.0	97.4	96.6	96.6	97.3	96.0
2012	1	95.9	97.0	97.5	96.6	96.5	97.3	95.9
	2	96.3	97.3	97.7	96.8	96.7	97.5	96.1
	3	96.7	97.5	98.0	97.0	96.9	97.8	96.3
	4	97.1	97.6	98.2	97.0	97.0	97.9	96.2
	5	97.3	97.6	98.3	96.9	96.9	97.9	96.1
	6	97.4	97.6	98.3	96.9	96.9	97.8	96.1
	7	97.6	97.6	98.2	96.9	96.8	97.8	96.0
	8	97.7	97.6	98.3	97.0	96.8	97.8	96.0
	9	98.0	98.0	98.6	97.4	97.3	98.2	96.6
	10	98.5	98.5	98.9	98.0	98.0	98.6	97.4
	11	98.9	98.8	99.1	98.5	98.5	98.8	98.2
	12	99.1	99.0	99.1	98.9	98.7	98.9	98.6
2013	1	99.3	99.2	99.3	99.2	99.0	99.0	99.0
	2	99.6	99.6	99.5	99.6	99.5	99.4	99.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4	100.3	100.3	100.4	100.4	100.4	100.5
	5	100.6	100.5	100.4	100.6	100.6	100.6	100.7

주: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3. 2013년 5월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아파트 가격지수 및 아파트 3.3㎡당 매매가격

<2013.3=100.0>

구 분	주택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3.3㎡당매매가격
강 북 구	100.0	100.2	99.7	100.6	1070.3
광 진 구	100.0	100.4	99.7	100.6	1730.4
노 원 구	99.7	100.1	99.8	100.2	1099.0
도 봉 구	99.7	100.9	99.5	100.7	1004.8
동대문구	99.9	100.4	99.8	100.6	1215.9
마 포 구	99.6	100.4	99.8	100.9	1602.2
서대문구	99.8	101.0	99.9	100.8	1218.3
성 동 구	99.6	101.0	99.6	101.0	1622.2
성 북 구	99.7	100.0	99.6	100.7	1199.3
용 산 구	99.1	100.6	99.4	100.7	2366.9
은 평 구	99.9	100.5	99.8	101.1	1185.6
종 로 구	100.0	100.2	99.9	100.3	1629.1
중 구	99.7	100.9	99.5	100.5	1655.3
중 랑 구	99.9	100.0	99.7	100.1	1080.4
강 남 구	100.1	100.2	100.1	100.0	2870.3
강 동 구	100.2	100.5	100.1	100.7	1614.8
강 서 구	99.7	100.8	99.5	101.3	1238.4
관 악 구	100.0	101.1	99.8	101.2	1198.5
구 로 구	99.9	100.5	99.7	100.6	1150.2
금 천 구	100.0	100.5	99.8	101.1	968.5
등 작 구	99.8	100.3	99.7	100.7	1495.1
서 초 구	100.0	100.2	100.0	100.1	2625.9
송 파 구	100.3	100.6	100.5	100.7	2118.9
양 천 구	99.7	100.5	99.6	100.7	1703.1
영등포구	99.6	100.8	99.6	101.2	1520.0

주: 아파트 평당매매가 (단위: 만원/3.3㎡),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 114

1. 주요 금융지표

<기말, 단위:%,p>

연 도	국고채(3년)	회사채(3년)	CD(91일)	콜금리	종합주가지수	환율(₩/U\$)
2006	4.83	5.17	4.48	4.19	1,352.2	955.5
2007	5.23	5.70	5.16	4.77	1,713.2	929.2
2008	5.27	7.02	5.49	4.78	1,529.5	1,102.6
2009	4.04	5.81	2.63	1.98	1,429.0	1,276.4
2010 1	4.29	5.40	2.88	2.00	1,682.2	1,138.8
2	4.19	5.32	2.88	2.00	1,599.0	1,156.8
3	3.94	5.02	2.83	2.01	1,665.5	1,136.1
4	3.77	4.69	2.51	2.00	1,730.3	1,115.7
5	3.70	4.48	2.45	2.01	1,648.3	1,168.4
6	3.75	4.65	2.45	2.00	1,691.9	1,214.0
7	3.88	4.81	2.58	2.21	1,731.1	1,204.9
8	3.73	4.68	2.63	2.27	1,762.2	1,180.1
9	3.48	4.41	2.66	2.27	1,815.8	1,162.9
10	3.24	4.13	2.66	2.26	1,889.7	1,122.2
11	3.40	4.19	2.73	2.37	1,924.7	1,128.1
12	3.25	4.17	2.80	2.50	2,002.5	1,147.5
2011 1	3.71	4.52	2.93	2.66	2,091.6	1,120.1
2	3.94	4.72	3.13	2.75	2,002.8	1,118.1
3	3.74	4.54	3.35	2.92	2,002.6	1,122.4
4	3.74	4.54	3.40	3.01	2,153.1	1,086.8
5	3.66	4.44	3.46	3.02	2,121.8	1,083.5
6	3.65	4.40	3.53	3.21	2,074.6	1,081.3
7	3.77	4.48	3.59	3.26	2,150.0	1,059.5
8	3.57	4.29	3.59	3.25	1,869.4	1,073.1
9	3.45	4.24	3.58	3.25	1,790.9	1,118.6
10	3.47	4.29	3.58	3.24	1,825.8	1,155.4
11	3.39	4.24	3.56	3.26	1,858.8	1,132.3
12	3.36	4.24	3.55	3.26	1,863.2	1,147.5
2012 1	3.37	4.24	3.55	3.26	1,891.0	1,145.8
2	3.43	4.25	3.53	3.25	2,003.2	1,123.4
3	3.55	4.36	3.54	3.25	2,023.4	1,125.9
4	3.50	4.25	3.54	3.25	1,995.9	1,135.5
5	3.38	4.01	3.54	3.26	1,886.4	1,154.3
6	3.29	3.87	3.54	3.26	1,848.6	1,165.5
7	3.01	3.60	3.34	3.08	1,826.8	1,143.4
8	2.83	3.40	3.19	3.00	1,918.9	1,131.7
9	2.81	3.31	3.14	2.99	1,961.3	1,124.8
10	2.78	3.30	2.93	2.80	1,942.2	1,106.9
11	2.80	3.32	2.85	2.75	1,904.7	1,087.5
12	2.85	3.30	2.88	2.75	1,973.8	1,077.0
2013 1	2.75	3.20	2.86	2.76	1,986.1	1,065.4
2	2.70	3.06	2.83	2.75	1,979.9	1,086.7
3	2.60	2.95	2.81	2.74	1,990.2	1,102.2
4	2.55	2.91	2.80	2.75	1,938.9	1,121.8
5	2.59	2.96	2.72	2.55	1,974.5	1,110.7

자료: 한국은행

2.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어음부도율

<단위: 개, %>

연 도		신설법인수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서울 계	제조업	건설	서비스업		
2006		19,801	1,717	1,714	16,344	0.06	891
2007		20,063	1,606	1,674	16,555	0.01	735
2008		18,133	1,717	1,520	14,865	0.02	977
2009		20,401	3,081	1,402	15,838	0.02	741
2010	1	1,812	286	150	1,360	0.03	51
	2	1,633	248	132	1,247	0.03	38
	3	2,044	342	158	1,539	0.02	48
	4	1,946	283	141	1,513	0.03	41
	5	1,669	257	120	1,286	0.03	45
	6	1,871	300	126	1,438	0.03	42
	7	1,850	313	122	1,412	0.03	56
	8	1,686	264	104	1,310	0.04	58
	9	1,485	243	85	1,148	0.03	49
	10	1,699	277	99	1,319	0.02	48
	11	1,847	257	122	1,458	0.02	51
	12	1,938	299	103	1,524	0.01	64
2011	1	2,000	283	138	1,566	0.01	26
	2	1,501	222	104	1,165	0.02	45
	3	2,055	222	131	1,677	0.02	51
	4	2,021	258	131	1,671	0.03	53
	5	1,844	209	132	1,489	0.02	53
	6	2,046	282	116	1,633	0.04	40
	7	1,918	277	120	1,512	0.01	45
	8	1,752	244	95	1,401	0.01	45
	9	1,597	203	85	1,301	0.01	35
	10	1,767	217	84	1,459	0.01	40
	11	1,804	228	111	1,452	0.01	53
	12	2,181	340	121	1,708	0.01	54
2012	1	1,939	236	117	1,578	0.01	30
	2	2,200	292	145	1,738	0.01	37
	3	2,167	275	134	1,742	0.01	35
	4	2,165	243	137	1,667	0.02	37
	5	2,186	253	148	1,775	0.01	32
	6	2,182	303	130	1,736	0.01	34
	7	2,273	343	123	1,789	0.02	33
	8	1,961	254	115	1,582	0.02	37
	9	1,949	263	113	1,565	0.01	44
	10	1,903	225	103	1,561	0.02	40
	11	1,972	248	86	1,625	0.03	33
	12	1,871	240	92	1,529	0.02	40
2013	1	2,283	325	133	1,809	0.02	30
	2	1,850	230	99	1,512	0.01	31
	3	2,099	263	119	1,706	0.01	31
	4	2,078	277	118	1,670	0.02	39
	5	2,140	279	129	1,721	0.02	29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3.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증감률

<단위: 개, %>

구분	2013년			전월비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서울 계	2,099	2,078	2,140	62	3.0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계	11	13	11	-2	-15.4
제조업 계	263	277	279	2	0.7
음.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27	33	31	-2	-6.1
섬유 및 가죽	54	55	52	-3	-5.5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14	10	14	4	40.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6	7	1	16.7
고무 및 화학제품	38	37	46	9	24.3
기계, 금속	23	33	31	-2	-6.1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76	75	81	6	8.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4	4	3	-1	-25.0
기타 제품제조업	17	24	14	-10	-41.7
건설업 계	119	118	129	11	9.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	7	13	6	85.7
건설업	111	111	116	5	4.5
서비스업 계	1,706	1,670	1,721	51	3.1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1	5	5	0	0.0
도매 및 소매업	463	499	500	1	0.2
운수업	37	36	39	3	8.3
숙박 및 음식점업	39	41	31	-10	-24.4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3	330	360	30	9.1
금융 및 보험업	212	180	206	26	1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9	120	132	12	1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02	249	249	0	0.0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107	97	85	-12	-12.4
교육서비스업	49	53	52	-1	-1.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31	4	-27	-8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22	31	35	4	1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20	22	23	1	4.5

자료: 중소기업청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5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5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3년 5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3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3년 5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3년 5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3년 5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3년 5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3년 5월중 어음부도를 동향」
한국은행, 「2013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서울경제 주요기사목록

(2005년 3월호 ~ 2013년 6월호)

2005년

3월호 | 권두칼럼: 우리 모두 소임을 다하자(조순) |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산업생태계의 동향과 전망 (정병순)

4월호 | 권두칼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공병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소고(박희석)

5월호 | 권두칼럼: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 공간(박삼욱) | 경제포커스: 서울시 산학연협력의 실태와 시사점(신창호) |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제도약 및 향후 발전방안(김선웅, 김경배, 윤형호, 조지선)

6월호 | 권두칼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김정호) | 경제포커스: 최근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설문조사(박희석, 안지선, 최태림) | 2005년 하반기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7월호 | 권두칼럼: 혁신(Innovation)에 대한 근본적 이해(윤현덕) | 경제포커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하여(정창무) | 최근 부동산 문제와 정책방향(김현아)

8월호 | 권두칼럼: 문화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김형국) | 경제포커스: 문화산업의 현황 및 육성정책(박위진) |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문화마케팅 전략(라도삼, 박종구, 이종규, 공자원)

9월호 | 권두칼럼: 청계천 복원사업의 리더쉽과 신한류(황기연) |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의 도심재생 효과(임희지) |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이영성) | 전문가 의견 및 설문조사: 도심 명소로서 청계천의 미래상(박희석, 이승지)

10월호 | 권두칼럼: 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자(김진호) | 경제포커스: 최근 고유가의 서울경제 파급효과 분석(박희석) | 고유가 시대의 대응 방안(오승구)

11월호 | 권두칼럼: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김성진) | 경제포커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한정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방안(홍순영)

12월호 | 권두칼럼: 8.31 부동산세제 평가(나성린) | 경제포커스: 8.31대책과 주요쟁점들(서승환) | 2006년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2006년

1월호 | 권두칼럼: 윤리경영, 환경경영(조동성) | 경제포커스: 인쇄업 인적자원개발(윤형호) |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박희석, 홍나미) | 자치구경제이슈: 「종로·청계 관광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성린)

2월호 | 권두칼럼: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왕연균) | 경제포커스: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인식(김경환) |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정희윤) | 자치구경제이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활성화(전성근)

3월호 | 이달의 이슈: 최근 서울 경기 향방은 어디로...(박희석) | 경제포커스: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II(정병순) |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전(박래현) | 자치구 경제이슈: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오근)

4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도시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신창호) | 경제포커스: 수도권 테마파크 현황과 발전방안(윤형호) |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이병민) | 자치구 경제이슈: 「광진구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석근)

5월호 | 이달의 이슈: 양극화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정병순) | 경제포커스: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완화방안(최경규) |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진단과 해소방안(김상일)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동직)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신창호) | 경제포커스: 서울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동기) | 전문가 의견조사: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박희석, 박지윤) | 자치구 경제이슈: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세계 속의 서초를 향하여(황인식)

7월호 | 이달의 이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허(虛)와 실(實)(송용일) | 경제포커스: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최경규) | 한국기술평가의 현황(양동우) | 자치구 경제이슈: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유근)

8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환경과 지역가치(라도삼) | 경제포커스: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 동향(구문모) | 새로운 영화산업의 중심지 서울강남지역의 특성(주성재) | 자치구 경제이슈: 「첨단업무단지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성용)

9월호 | 이달의 이슈: 학교선택권 확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박정수) | 경제포커스: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김진영) | 대학재정의 현황과 발전방안(안종석) | 자치구 경제이슈: 「우량기업 유치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임일영)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은 성장동력인가?(김철원) | 경제포커스: 도시마케팅의 현황과 발전방안(김찬동) |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리는 서울 도시관광의 미래상(박종구) | 자치구 경제이슈: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이기)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김은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윤형호) |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최경규)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윤병구)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4대 산업벨트 조성을 경제 제도약의 계기로(신창호) | 경제포커스: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화(정병순) | 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윤형호, 임석) | 심층의견조사: 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 박지윤)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특별발전 전략(정경효)

2007년

2007년부터 서울경제 발행일이 <매월말일 당월호>에서 <매월말일 익월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호는 발간되지 않으며, 2007년 1월 말일 발간되는 서울경제는 <서울경제 2월호>로 표기됩니다.

2007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도시재생의 방향(오병호) | 경제포커스: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양재섭, 김정원) | 도시 창조지수 및 창조집단의 분포 특성으로 본 도시재생 전략의 방향(신성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금융기관대출금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오피스시장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인프라가 튼튼하여 잘사는 관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용중)

2007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고령자 취업정책(황진수) | 경제포커스: 서울시 고령자 취업특성 분석(윤형호) |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자 현황(김은희) | 생생리포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디지털산업의 메카」로 변신(강현주) | 자치구탐방: 「화곡유통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김영수)

2007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블루오션,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박창일) | 경제포커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김남현) |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 네트워크(원용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박지윤·박희석) | 자치구

탐방: 「상암 DMC와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재형)

2007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황과 육성 전략(유병규) | 경제포커스: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오찬수)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의 도전과 응전(정병순) | 생생리포트: 서울시 창업 및 부도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30평형 아파트 가격 비교(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경숙)

2007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김철원) | 경제포커스: 국제회의 개최현황 통계 속의 전략적 의미(금기용) | 서울시 컨벤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진홍석) | 생생리포트: 동대문, '패션특별시, 서울'을 꿈꾸다(강현주) | 자치구탐방: 「미아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이동명)

2007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육성 방안(이윤보) | 경제포커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전인우)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효과(신창호) |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박지희·박희석) | 자치구탐방: 「가재울뉴타운추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내원)

2007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신재생에너지의 과제와 비전(조경엽) | 경제포커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과(부경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조항문) | 생생리포트: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추이(강현주) | 서울시 R&D 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박지희) | 자치구탐방: 합리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봉구의 발전방안(최영수)

2007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비스시장 개방(차문중) | 경제포커스: 법률시장 개방의 영향 및 효과(고준성) | 한미 FTA 체결협정과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김범수) |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체감경기조사(박희석·박지희) | 자치구탐방: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권장오)

2007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한타지경제시대의 경쟁력과 디자인경영(정경원) | 경제포커스: 세계

디자인의 중심을 꿈꾸는 월드디자인플라자(신창호) | 유티쿼터스 시대의 도시디자인(최두은) | 생생리포트: 「가능성에 올인」 애니메이션산업을 키운다(강현주) | 자치구탐방: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유경림)

2007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공연예술산업(김문화) | 경제포커스: 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장광렬) | 뮤지컬, 그 판타지가 세계를 물들인다(박용재) | 생생리포트: 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생활물가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청담·압구정 패션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주운중)

2007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다양성 영화의 성장은 영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안정숙) | 경제포커스: 서울시 국제 홍보 방안으로서 영화산업(장동찬) | 서울시 드라마 산업(고정민) | 생생리포트: 황금알을 낳는 의약산업, 바이오벤처에 달렸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보석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여덕수)

2008년

2008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세계 도시 서울(김경환) | 경제포커스: 「글로벌 도시, 서울」을 향하여(최재현) | 서울,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 도약(홍석기) |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박지희) | 자치구탐방: 성수동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김상호)

2008년 2월호 | 달의 이슈: 외국인 100만 시대의 외국인력정책(박영범) | 경제포커스: 외국인고용 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유길상) | 외국인력 정책과제(이규용) |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변화 추이(서울시장개발연구원) |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추이(서울시장개발연구원)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구자선)

2008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 방향과 서울의 역할(장운중) | 경제포커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이홍식) |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언(전영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별 이노비즈(Innobiz) 기업 현황(박희석·권태구) | 자치구탐방: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과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기순)

2008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통합적 도시브랜드로서의 디자인서울(박영순) | 경제포커스: 도시브랜드를 위한 통합 디자인(장동원) | 디자인 서울(윤종영) | 생생리포트: 국제 곡물 가격 추이(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고광득)

2008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예술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이유(전택수) | 경제포커스: 문화산업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옥성수) |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계획(라도삼) | 생생리포트: 최근 고유가 추세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화(황필성)

2008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Carbonomics'의 미래(김정인) | 경제포커스: 승용차 이용 감축을 통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고준호) |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망과 서울에서의 의의(이부형) | 생생리포트: 2008년 하반기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예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윤영표)

2008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자영업의 현황과 인프라(이상현) | 경제포커스: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화 및 협업화 과제와 정책방향(전인우) | 자영업 취업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손민중) | 생생리포트: 내수경기 침체시 서울지역 자영업의 위험성(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전통상권 살리기(김재형)

2008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박승득) | 경제포커스: 고유가 추이가 서울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박희석한진아) | 고유가와 민생대책(이달석) | 생생리포트: 유가급등의 원인과 대응전략(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첨단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동욱)

2008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외식업 활성화대책 및 육성방안(김태희) | 경제포커스: 외식업 창업지원 현황과 과제(이경희) |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윤남수) | 생생리포트: 경기도에 민감하고 대형화하는 서울시 음식점업(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김태두)

2008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발전방향(김영인) | 경제포커스: 서울패션브랜드, 세계 초일류의 꿈은 환상인가(김민자) |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방안(조익래) |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찰(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가칭 「양재 R&D」 밸리 조성을 통한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하익봉)

2008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의 필요성(이주선) | 경제포커스: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임준) | 서울시 의료관광 현황과 방향(윤형호) | 생생리포트: 데이터로 본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징과 전망(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강동구 집단에너지(CES) 공급사업(임수근)

2008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저소득층 소득향상과 사회통합 과제(최경수) | 경제포커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해소 방안(이부형) |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 - 3業2財(김선빈) |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의 현황과 특성(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김용중)

매달 제공되던 생생리포트가 2009년부터 분기별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2009년

2009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서울시 정책 방향(박희석) | 경제포커스: 2009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방향(김선홍)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선인명) | 생생리포트: 금융위기 속 서울의 부도법인 수 큰폭 증가(조달호·이춘

화) | 자치구탐방: 삼각산 관평타운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정종규)

2009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세계 물 산업 동향과 서울의 수도사업 발전방향(권형준) | 경제포커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물 산업 경쟁력 방안(윤형호) | 물 산업 측면에서 서울의 여건과 발전방향(윤주환)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김백곤)

2009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서울시의 방향(김정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협력형 녹색성장 촉진 방안(이정택) | 서울의 녹색성장을 위한 제언(박병욱) | 자치구탐방: “상봉지구 재정비”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봉로)

2009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녹색성장시대 지식 기반 제약산업 글로벌화(김성수) | 경제포커스: 바이오기술경영 및 규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바이오산업 추진방향 고찰(김문기) | 서울 바이오산업 발전방향(이상규) | 생생리포트: 서울시 녹색성장 효율성 평가(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진호)

2009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산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전망과 서울시의 대응방안(부경진) | 경제포커스: 녹색도시를 위한 서울시 그린카 활성화(고준호) | 녹색성장을 위한 LED조명 발전방안(주대영) | 자치구탐방: 서대문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심규표)

2009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변양규) |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방향과 전략 -일자리 창출 사례를 중심으로(윤형호) | 일자리 창출 증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허재준) | 자치구탐방: 강남구 탄소미일리지제도 운영(배영철)

2009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현황과 과제(김창석) | 경제포커스: 서울시 중심지 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양재섭·장남중·권미리) | 서울시 뉴타운산업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이왕건) | 자치구탐방: 노원, 전국 최고 도시를 꿈꾸다(권장오)

2009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온라인 게임산업과 서울시의 전략(위정현) | 경제포커스: 대한민국 게임 산업, 그리고 새로운 10년(장현영) | 게임한류의 성과(김민규) | 자치구탐방: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례(박경호)

2009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여건과 과제(최생림) | 경제포커스: 여의도 금융중심지 정주환경 개선방안(윤형호) | 서울시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김창래) | 자치구탐방: 용산 전자유동단지 발전 및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영환)

2009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한국 바이오제약 산업의 발자취와 미래 그리고 서울(김찬화) | 경제포커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방안 리뷰(여재천) | 제약기업의 발전을 위한 M&A의 역할(윤수영) |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저축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김은혜)

2009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장재) | 경제포커스: 지식기반도시를 향한 서울의 R&D 전략(문경일) | 장기불황을 극복한 일본기업의 R&D 사례와 시사점(이지평) |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 보석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용순)

2009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개방화시대 광역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전략(정희윤) | 경제포커스: 수도권 광역경제권 효율적 네트워크 전략(김찬동) |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과 수도권에의 시사점(김영수) | 자치구탐방: 새로운 전략거점 개발과 걸쳐노믹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이미령)

2010년

2010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디자인노믹스의 등장과 서울의 대응전략(라도삼) | 경제포커스: 디자인을 꿈꾸고 디자인으로 성장하는 도시, 서울(최성호) | 도시명과 관련 상징물을 고려한 도시 이미지 디자인(홍석기)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양성태)

2010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무선인터넷을 통한 IT 서비스업 활성화(김성태) | 경제포커스: 반쪽 IT 강국, IT 서비스업 육성해야(임상수) | 국내 IT 서비스업 발전방안과 과제(김민성) | 자치구탐방: 종로, 지역의 역사가 곧 문화컨텐츠(최용순)

2010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교량자 가계 재정 분석(윤형호) | 경제포커스: 실버산업:인구고령화의 기회(김신영) | 실버산업의 유형과 장기적 전망(임춘식) | 자치구탐방: 금융뉴타운 조성을 통한 중구 브랜드 가치 제고(우상길)

<이달의 이슈>와 <경제포커스>로 구성되었던 서울경제가 4월호부터는 <이달의 이슈>로 통합되어 제공되며, <생생리포트>는 격월로 게재됩니다.

2010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조영복) |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향후 과제(정선희) |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특성분석(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지역경제 초석 다지기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김태두)

2010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방안(김찬동) | SSM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김유오) | 자치구탐방: 선진적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동수)

2010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배출권거래제의 해외동향과 서울시의 시사점(박호정) |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제언(진상현) |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안구직 및 취업 실태와 특성(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동대문구 21C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사업(이종인)

2010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융합시대의 IT산업의 방향(이성호) | 산업융합의 대두와 발전전략(서동혁) | 자치구탐방: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종인)

2010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방향(문경일) |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지원정책(안재현) | 생생리포트: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변화추이 및 특성분석(박희석·오동훈·한진아) |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김백근)

2010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전환기의 서울경제, IT산업의 재도약과 IT융합산업(정병순) |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과 과제(김진형) | 자치구탐방: 마포의 성장 동력 4대 거점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황중익)

2010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추이분석을 통한 여성취업비 발전방안(조연숙) | 서울의 경력단절과 향후 과제(오은진) | 생생리포트: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특성 분석(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상영)

2010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의 역량강화 방안(김범식) |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에서의 지식기반 제조업의 발전방향(송재용) | 자치구탐방: 민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김찬식)

2010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김목한) |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대한 해외사례(조창현) | 생생리포트: 상업공간으로서의 서울의 길(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센터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오태섭)

2011년

2011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은 글로벌 메가 시티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변미리) | 글로벌 메가 시티의 현황과 전망(정재영) |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기호)

2011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방안(신경희) | 예비사회적기업과 여성(조선주) |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과 구민취업 두 마리 토끼잡기(이관수)

2011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 MICE 산업의 미래와 과제(반정화) | MICE 산업의 트렌드 및 대응과제(주영민) | 기업탐방: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SR센

터(조달호·정규진) | 자치구탐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이판수)

2011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산업관광 훑어보기(김묵한) | 우리나라 산업관광의 미래발전방향(김상태) | 생생리포트: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문래 창작촌(박희석·한진아)

2011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광고산업 변화(이종관) | 한미 FTA가 우리나라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한상필) | 기업탐방: U-Healthcare 분야에서의 비트컴퓨터의 역할(조달호·정규진)

2011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창조기업 육성방안(이갑수) | 1인창조기업의 시대를 맞아(안남우) | 생생리포트: 서울시 도매업의 변화추이와 특성분석(박희석·양승희)

2011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용취약계층과 유연근무제 활성화(김태홍) | 서울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방안(진종순) | 생생리포트: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박희석·한진아) | 서울지역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박희석·한진아)

2011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10%의 기업이 40%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김선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조호경)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바이오메디컬(박희석·양승희)

2011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한미 FTA와 서울시 정책과제(김도훈) | 한미 FTA와 서울의 금융서비스산업(성한경)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MICE산업(박희석·한진아)

2011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신상영) | 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박정현) | 생생리포트: 2011년 3/4분기 서울의 소득별·연령별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박희석·오동훈)

2011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발전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노영진) |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과 서울시의 과제(임형준)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한류문화콘텐츠 산업(박희석·양승희)

2011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 취업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이찬영) | 취업부모의 보육서비스 효율과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홍승아) | 생생리포트: SDI 서울지역 4/4분기 체감경기 조사 및 경제전망(박희석·오동훈)

2012년

2012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김동열)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이은애) | 생생리포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박희석·한진아)

2012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OECD 국가 중 국내 물가가 높은 이유(임희정) |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웅선)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가계부채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2012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권역별 주요 산업현황과 추세(김묵한·김범식) |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향(정종석) | 생생리포트: 서울의 권역별 소비자 체감경기 특성(박희석·곽지원)

2012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그 기능성에 대한 탐색(나도삼) | 현사례조사로 본 전통시장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송기철) | 생생리포트: 서울, 시장(市場),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풍경(박희석·한진아)

2012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마을공동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김재현) | 지역문제 해결은 마을기업만의 몫이 아니다(박학룡) | 생생리포트: 작지만 강한 힘,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박희석·곽지원)

2012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농업: 다양한 존재형태와 발전방향(김태곤) | 서울의 도시농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이강오) | 생생리포트: 서울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2012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가계부채(김동환) | 건강한 주택시장을 향한 제언(홍미영) | 생생리포트: 2012년 서울, 청년취업생들의 초상(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2012년 하

반기 서울경제 전망(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청년층의 구인난과 중소기업 구인난 불일치 분석 및 해소방안(김영생) |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본 젠더 거버넌스(김영미)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여성 CEO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실업자 추이 및 청년 실업률(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제조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업규모별 발전특성 및 시사점(이종욱) |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발전방안: 협동조합금융의 재안(김자봉) | 생생리포트: 서울 물가상승 추이 및 대응방안(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선식품 및 소비자물가 추이 | 2012년 상반기 서울 가계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도시 어메니티 형성과 도시문화정책의 방향(용호성) | 서울시 MICE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권영돈) | 생생리포트: 노후준비에 대한 서울가구 의견조사(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2012 서울시민들의 노후준비 | 서울 아파트 평당 (3.3m) 전세가격과 증가율(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의 대형마트, SSM의 영업제한제도 시행현황 및 상생협력(강희은) |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김범식) | 생생리포트: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실태(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서울여성CEO 현황 및 상위 5개 업종 | 서울 자영업체 상위 5개 업종과 자치구별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남기철) |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정성미)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미용산업의 특징과 자치구별 현황(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서울지역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추이 | 서울시민 주거형태와 전세자금 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013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중산층 재건을 위한 사회안전망(김경혜) | 중산층의 변화와 대응(김용기) | 생생리포트: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

지 활성화 방안(최동욱) |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규 구인·구직 직종(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남윤형) |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통한 서울시의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노화봉) | 생생리포트: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한 희망결연 프로젝트(박승돈)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식육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양현봉) |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동주) | 생생리포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중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안해칠)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전력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소외와 서울시 서민금융의 방향(박덕배) |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배준식) | 생생리포트: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서울경제분석센터)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문화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고정민) | 창조경제론의 부상과 서울시 대응전략(라도삼) | 생생리포트: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김재묵) | 인포그래픽스: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곽대중) | 저에너지건물 보급, 무엇이 문제인가?(김민경) | 생생리포트: 서울, 주점보다 커피전문점(서울경제분석센터) | 인포그래픽스: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저(서울경제분석센터)